

11  
2022  
VOL. 317

#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KB Bukopin

# KB Bukopin이 교민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

## D'Star 프로그램

(Deposito Rupiah / 루피아 정기 예금)

- 프로그램 기간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2월 31일
- (개인/기업)신규 또는 기존고객에게 적용
- 최대 5.5% p.a 특별 금리 적용

개인 고객 :

상품	금리	
	6개월	12개월
Deposito + SiAga	5.00% p.a	5.30% p.a
Deposito + SiAga + Wokee (linked)	5.25% p.a	5.50% p.a

- Deposito 가입하고 SiAga 통장 (active)을 소유한 개인 고객에게 최대 5.3% p.a 특별 금리 제공
- Deposito 가입하고 SiAga 통장 (active) 소유 및 해당 SiAga 통장을 Wokee 어플에 사용 등록한 개인 고객에게 최대 5.5% p.a 특별 금리 제공
- IDR 8,000,000 부터 예금 가능

기업 고객 :

Tiering	예금 금액	금리	
		6개월	12개월
Tiering 1	IDR100.000.000 - < IDR2.000.000.000	5.00% p.a	5.30% p.a
Tiering 2	≥ IDR2.000.000.000	5.25% p.a	5.50% p.a

- 기업 고객의 경우 KB부코핀은행 기업입출금통장 (Tabungan SiAga Bisnis KB Bukopin 또는 Giro KB Bukopin) 보유 시 특별금리 제공 가능
-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특별금리 별도 구분 적용
- 모든 SiAga Bukopin 저축에 적용
- Fresh Fund를 통한 정기예금시 해당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만기일 이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조건으로 패널티 적용

이자 지급 방법	패널티 메커니즘		
	기간	차단 해제	패널티
월 이자 지급 /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 지급	6개월	< 3 개월 ≥ 3 개월	0.75% Free
	12개월	< 6 개월 ≥ 6 개월	0.75% Free
선불 이자	벌금은 세금포함한 지급된 이자만큼 계산함		

## D'Star 프로그램

(Deposito Valas / 외환정기예금)

- 프로그램 기간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2월 31일
- (개인/기업)신규 또는 기존고객에게 적용
- Deposito Valas (외환 정기 예금) 상품에 적용  
(최소 예금 금액 USD 1,000)
-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최대 1.5% p.a 특별 금리 제공

금리		
3개월	6개월	12개월
1.10% p.a	1.30% p.a	1.50% p.a

- 예금 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입니다.
- Fresh Fund를 통한 정기예금시 해당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만기일 이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0.75% 패널티 적용

**D'Star PLUS**

UP TO 5.5%

19 OKTOBER - 31 DESEMBER 2022

- 신규 및 기존 고객에게 적용
- 최대 5.5% p.a. 금리
- 약관 적용



KB Bukopin

- KB Bukopin 은행은 2022.6월 Global 신용평가회사 Fitch 및 인도네시아 신용평가회사 Pefindo로부터 인도네시아 기준 최우량 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 창구 방문, 콜센터 또는 아래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 대표 영업점 주소(KB Bukopin 은행 본점 소재)  
KB Bukopin Head Office G Floor,  
JL. MT Haryono Kav. 50-51  
Jakarta Selatan Indonesia 12770

• 담당직원 및 연락처

\*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4005)

\* 정철민 본부장 (코리아데스크 : 0821 1463 0602)

\* Ms.Siska Andini (본점 영업부 팀장 : 0819 0505 4922)



# Hyundai STARGAZER

Bintang baru keluarga.



## Test drive now.

※ 가까운 쇼룸에서 시승하실 수 있습니다.

###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2022년 12월 말까지 구매고객 대상)



사고시 신차 교환\*  
(1년내 75%이상 차량 전손 시)



고객 안전 프로그램\*  
(1년내 사고시 1인당 최대 1억 루피아 7명까지 치료비 지원)



잔존가치 3년 70% 보장\*



금융 안전 프로그램\*  
(1년내 사고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시 잔여할부금 면제)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홈페이지 및 가까운 딜러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 금융 프로그램

- 유예 할부 (~3년):
    - 월 납입금 최저 2.4 Juta
    - 차량 가격 50% 만기 시 상환
  - 장기 저이자 할부 (~7년):
    - 월 납입금 최저 3.1 Juta
  - 저선수금 할부
    - 초기 선수금 최저 40 Juta
- ※ 금융상담: Sunindo KB Finance, 신한은행

### 특별 구매 혜택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초청\*

\*7월~9월 구매고객 대상 3명 추첨



**3+1** YEARS WARRANTY  
/100,000 km

**3+1** YEARS FREE SPARE PARTS  
/60,000 km

**5** YEARS FREE MAINTENANCE  
/75,000 km







## 월간 한인뉴스 11 2022

표지 사진: JIKS 코리안데이  
2022년 10월14일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러다이어트운동과 고젝효과 그리고  
인니사회 변화

## 10

김재훈의 '세무 TALK'  
— 조세 범죄

## 12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이야기 59

##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 20

문법왕 〈민선희〉





# contents

2022. 11. 통권 317호

24

[여기가 맛집!]  
BELLA'S LA CUCINA  
ITALIANA  
〈황지영〉

26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  
역량강화 연수

28

[떠나야 보이는 것들]  
“있는 곳에 머물지 말 것”  
〈손예리〉

30

동남아와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에 대해 알고 싶다면  
〈조연숙〉

33

한산도함 자카르타 입항

34

두 개의 시선 – 여러분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헬른 하르소노〉

36

행복에세이  
– 새벽 길 〈김준규〉

38

그 시절의 영웅 〈최호열〉

41

KOGA OPEN GOLF  
FESTIVAL

42

HALLOWEEN PARTY 2022

44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황다인〉

46

JKS 소식

52

제대로 이해하는 인도네시아  
고유명사 〈민선희〉

56

전통과 생활관습을 공유하다  
〈허용호〉

60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15)  
– 분쟁 해결 방법(3)  
〈이승민〉

66

생활정보



## 러다이어트운동과 고젝 효과 그리고 인니 사회 변화



논설위원 신성철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들던 면직물을 방직기계가 만들게 됐다. 이로 인해 수공업으로 만든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생산량이 폭발하면서 산업, 경제 및 사회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급변한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본주의와 자본가가 등장한다. 1811년 당시 영국에서는 직물공장을 대상으로 한 연쇄방화 테러사건이 일어났는데, 용의자로 ‘네드러드’ (Ned Ludd)를 지목했다.

연쇄테러사건의 주동자 ‘네드러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파괴하는 습성을 지닌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1811년~1817년에 일어난 기계 파괴 사태를 ‘네드러드’의 이름을 따서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이라고 부른다. 그로부터 200여년 후 미국에서 자율자동차가 나타나자 일부 시민들이 자율자동차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첫 번째 기록은 2018년 1월 2일 한 남성 보행자는 길을 건너기 위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율주행 중인 쉐보레 볼트 차량을 공격했다.

국민앱을 넘어 슈퍼앱으로 성장한 고젝(Go-Jek).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고젝이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 하지만 고젝에게도 러다이트운동과 같은 시련이 있었다. 고젝이 혜성처럼 등장해 택시승객이 급감하자, 위기를 체감한 택시기사들이 고젝이 자신들의 고객을 빼앗는다고 거리 곳곳에서 승차공유서비스인 오토바이택시 고라이드(Go-Ride)와 고카(Go-Car) 기사들을 공격했고, 고젝을 타고가는 승객을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폭력사태가 확산되는 혼란사태에 빠졌다. 조코위 대통령은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갈등의 해결사로 나섰다. 이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블루버드 택시는 고젝과 협력해 사업이 더 확대된 반면, 경쟁업체인 익스프레스택시(Taksi Express)는 경영난을 겪다가 코로나 19 사태 초기인 2020년에 파산했다. 이밖에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앙콧(angkot)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춘 자리에 녹색 헬멧을 쓴 고젝과 경쟁업체 그랩(Grab)의 라이더들이 거리를 채웠다.



고젝이 등장하기 전까지 교통 체증으로 악명 높은 자카르타에서는 ‘오젝’ (Ojek)이라는 오토바이택시가 널리 이용됐다. 하지만 요금 시비와 바가지 요금은 물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고심하던 인도네시아 청년 나딤 마카림은 2010년 콜센터와 20대의 오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출신인 마카림은 인도네시아에 모바일 스타트업 붐이 불기 시작한 2015년부터 오젝을 호출하고 탈 수 있는 고젝 앱을 출시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오젝 시장을 단시간 내에 평정한다. 고젝은 사업을 다각화하며 진화한다. 음식배달서비스인 고푸드(Go-Food)와 장보기 서비스 고마트(Go-Mart), 택배 서비스 고센드(Go-Send), 용달차 서비스 고박스(Go-Box), 처방된 약을 배달하는 고메드(Go-Med) 등 20여 종류의 생활밀착형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이어 전자지갑 ‘고페이’ (Go-Pay)를 출시했다. 신용카드 보급률 4%와 은행계좌 보유율이 40% 미만인 금융 환경에서 현금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깔끔하게 해결한 ‘고페이’를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해 고젝 이용자들의 지불은 물론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심지어 공과금도 낼 수 있게 됐다.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에서 출발한 고젝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핀테크 기업으로 진화하며 아세안 시장으로 뻗어 나갔다.

고젝의 사업 방향은 무현금사회와 디지털경제를 추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한다. 정부는 세수입 확보와 재정·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이제는 전자화폐로 지급하면서 많은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됐다. 고젝은 자사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소액대출사업을 펼치고 보험 등 디지털 금융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 회사와 협력하는 라이더는 약 100만 명이고, 식당 등 협력업소는 12만 5천개이다. 또 고페이를 통해 월간 1억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젝은 아세안 시장은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랩(Grab)을 비롯한 슈퍼앱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2021년 이커머스 유니콘인 토코페디아(Tokopedia)와 대규모 기업인수합병(M&A)을 했다. 2009년 영업을 시작한 토코페디아는 최근 쇼피(Shopee)에 밀려 2위로 밀려났다. 그랩과 경쟁하는 고젝과 쇼피와 싸워야 하는 토코페디아가 합병함으로써 고토그룹(GoTo)이 탄생했다. 고토는 금융과 커머스, 모빌리티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모두 합쳐진 아세안의 공룡으로 몸집을 키웠다.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혁신의 상징으로 꼽히는 그랩과 고젝 등 슈퍼앱들이 올해 들어 실적 악화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10년 넘게 황금기를 누렸던 이들 빅테크기업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의 여파 등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직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30%에 미만인 만큼 디지털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소비력이 왕성한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아세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고젝 등 빅테크기업의 등장은 인도네시아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인도네시아를 빠르게 디지털 경제로 이행시켰다. 물론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깃노동자(Gig Worker)를 대량으로 양산했다. 깃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임금 하락, 고용조건 악화, 중산층 몰락은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테크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축소도 잇따르고 있다. 그랩이 인도네시아의 공유주방 서비스인 그랩키친 사업을 접는 등 고젝과 그랩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

러다이트 운동의 역설은 기존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기술과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것이다. 방직기계의 출현으로 수공업은 쇠퇴했으나 이후 인류는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로 수많은 경공업과 중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었지만 디지털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젝 창업자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하는 등 교육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간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 대응하는 것도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끝)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경일 행사 열어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10월 4일 더 웨스틴 자카르타 호텔에서 개천절을 기념해 국경일(National Day)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해 나딤 마카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과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장관, 바수키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장관,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장관 등 5명의 장관과 에드워드 탄누르 의원 협회장, 스리 울란 한·인니 의원친선협회 의원과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신태용 감독도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양국 외교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비준됐다. 지난 7월 양국 정상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회복, 녹색 경제, 신수도 개발 등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양국 간 협력은 아세안,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나딤 마카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양국은 교육문화 분야의 혁신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라며 “양국의 우정이 정부 인사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를 통해서도 심화하고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자들이 대형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며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장 밖에는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부스도 운영하여 현지 손님들의 관심을 모았다.



## 조세 범죄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조세조화법 (HPP/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에 조세 벌칙에 대한 벌과금을 규정하고 있다.

1. 업무 과실로 인하여 국가 수입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100%의 행정 벌과금
2. 고의적으로 아래 언급한 과실을 저질러 국가 수입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300%의 행정벌과금
3. 위조 세무 증빙의 경우 400%의 행정벌과금

상기 2항에서 고의적으로 아래 언급한 9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300%에 해당하는 벌과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1) 납세자번호 (NPWP)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가세 과세업체 (PKP)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 2) 납세자 번호 또는 부가세 과세업체 등록을 악용하거나 권한이 없는 가운데 사용하는 경우
- 3)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4) 세금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고/또는 그 기재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 5) 세무조사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 6) 허위장부,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제공하거나, 진실인 것처럼 위조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진실된 상황을 유추할 수 없을 경우
- 7) 인도네시아에서 경리 장부나 기록을 기장하지 않고, 장부, 기록 또는 기타 서류를 제공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경우
- 8) 경리 장부 기장의 근거가 되는 장부, 보조 기록 및 기타 서류 또는 전산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관된 경리 장부의 자료 처리 결과를 포함한 기타 기록 및 서류들을 인도네시아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 9) 징수 또는 공제한 세금을 미납한 경우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과실이냐, 고의냐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서 판단하겠지만 세금계산서 범칙 행위는 주의할 부분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범칙이라고 하면 어떤 납세자는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자료상(브로커)을 통해서 매입자료를 사거나, 어떤 납세자는 거래 구조상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여 매출자료를 구하는 사례로써 이러한 행위가 자료상(브로커)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든지 또는 이러한 내용의 투서가 세무당국에 들어 간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세무당국에서 확인이 되면 세무 조사가 아닌 초등증거조사, 조세법 위반자(Penyidikan tin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세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Penyidikan tin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란 조세관련 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위한 증거를 찾고 수집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사를 통해서 행위가 확정이 되면 최소 3배 ~ 4배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거래 질서와 조세 절차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조세당국에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요약하면 매입, 매출 자료를 사고 파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수급으로 상기 법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세범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등증거 조사중이라면 추징금등을 합의해서 최대한 신속히 해결을 하여야 하겠다.



쁘라노토 렉소사무드라 당시 육군사령관 내정자(좌), 사르위 에디 위보워 대령(우)

### 지난호에 이어

나수티온이 도착한 것은 오후 6시경이었고 그때 수하르토는 마침 사르위 에디 위보워의 부대를 반란군의 대항마로 배치하던 참이었다. 나수티온은 그제서야 그의 부러진 발목을 위한 첫 치료받을 수 있었다. 자카르타의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마르타디나타는 뿌라노토를 육군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명령서를 가지고 전략예비사령부에 들어왔다. 그 내용을 읽어 본 수하르토는 마르타디나타와 나수티온을 방 안으로 초청해 상황을 협의했다.

수까르노 대통령이 뿌라노토를 임명하게 된 경위를 나수티온이 묻자 마르타디나타는 그와 유도디하르요, 다니 등이 할림에서 수까르노와 회합을 갖고 야니 장군이 타계한 지금 누가 차기 육군사령관이 되어야 할지를 협의한 끝에 뿌라노토를 선택한 것이라 답했다. 수하르토는 납치 감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림 반란군들 틈에서 어떤 특정한 위협도 받지 않고 자의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명백히 반란군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은 나수티온이나 수하르토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수티온은 수하르토가 이미 진압작전을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반란군 본부에서 자유의지 여부가 분명치 않은 수까르노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뿌라노토를 할림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수하르토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나수티온과 수하르토는 뿌라노토를 불러 들어 수하르토가 이 쿠데타 시도를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 육군사령관 임명에 대한 수락을 늦추어 달라고 설득했다. 쿠데타 상황 한가운데에서 줄지에 영전과 반역 사이의 외줄타기를 하게 된 뿌라노토로서는 수하르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날 수카르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9월 30일 쿠데타는 그가 인도네시아 공산당 PKI를 이용해 스스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으킨 친위쿠데타였을까? 아니면 수카르노도, 인도네시아 공산당도 군의 소장과 쿠데타세력에게 이용당한 희생자들이었을까? ‘수카르노의 마지막 경호원’이라는 서적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궁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육군부대에 의해 포위된 후 수카르노는 부인 하르야띠의 집을 들렀다가 할림공군기지로 향했다. 당시 시간은 아침 9시반이었고 푸른색 승용차가 수카르노의 관용차를 뒤따르고 있었다. 그 시간 할림공군기지는 별다른 혼란도 없는 한산한 분위기였고 수카르노는 검찰총장 수나리오와 함께 공군작전사령부 건물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오마르 다니 공군사령관, 레오 와띠메나 장군 등과 만났다. 그들은 수카르노에게 상황브리핑을 했다.

곧이어 세 명의 육군장교가 도착했는데 그들은 비상 만달라 전투사령관 수빠르쥬 준장과 밤방 수빠노 소장, 그리고 그때 독립궁을 포위하고 있던 육군전략사령부 소속 다르마 뿌뜨라 대대의 지휘관인 수끼모 소령이었다. 수빠르쥬 준장이 안에 들



수나리오 검찰총장(좌), 레오 와띠메나 장군(우)

어가 수카르노를 만나는 동안 다른 두 명은 밖에서 기다렸다. 이는 수빠르쥬 준장이 이날 벌어진 쿠데타에서 수빠노 소장보다 더욱 핵심인물이라는 반증이었다. 수빠르쥬는 쿠데타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요구했고 수카르노는 이를 완강히 거절하며 즉시 전투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수카르노는 말레이시아와 전쟁을 최전선에서 수행하며 기존 군수뇌부에 불만을 감추지 않던 수빠르쥬 준장을 숙군작업의 책임자로 여겼으므로 그 회합에서 수빠르쥬 준장이 쿠데타의 배후임을 이미 짐작하고 있을 터였다. 장성들의 숙청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여겼던 수카르노가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의외일 수밖에 없었고 수빠르쥬는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할림공군기지를 떠났다.

일각에서는 9월 29일 밤 수빠르쥬가 오마르 다니 공군사령관을 통해 수카르노에게 불충한 장성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자신이 육군부대들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고했다고도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9월 30일 쿠데타는 수카르노의 의지를 담은 친위쿠데타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할림공군기지에서 수카르노와 수빠르쥬의 만남은 쿠데타의 승인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날 새벽 수행된 육군장성숙청에 대한 보고였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수카르노는 수빠르쥬의 보고를 통해 공산당 PKI 당수 DN 아이딩도 할림 공군기지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카르노는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마르타디나타, 경찰총장 수쩍또 유도디하르쥬, 자카르타 수비대장인 제5사단 우마르 위라하디꾸수마 소장등의 최고위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인 수산또 공군대령의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쿠데타 습격사건이 벌어진 나수티온 장군 저택과 육군전략사령부를 오가면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위라하디꾸수마 자카르타 수비대장을 제외한 다

른 사람들은 참석의사를 보내왔다. 육군전략사령관 수하르토 소장은 회합소집에 대해 현재 육군사령관 아흐맛 야니 중장이 유고상태이니 육군의 모든 결정은 육군 차상위 명령권자인 자신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회의소집명령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었다.

수하르토의 전언을 들은 수까르노의 얼굴에 실패의 빛이 스쳤고 결국 그가 소집한 회합은 수하르토와 위라하디꾸수마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한편 회의장 밖을 지키던 병사들도 불안감에 컷속말을 나누거나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위장성들이 달려와 비상회의를 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병사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날 12시 정오 운퉁 중령이 내각해산과 혁명대표부 수립을 발표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야 자신들이 쿠데타 상황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위험을 느낀 수까르노의 자녀들은 그날 오후 헬리콥터 편으로 반둥으로 소개되었다.

수산또 대령의 집에서 열린 회합에서 수까르노는 뿌라노토 렉소사무드라 장군을 육군사령관장관에 임명했고 밤방 위자나르코가 뿌라노토를 데리러 갔다. 뿌라노토의 위치를 파악한 밤방은 육군전략사령부에 들러 수하르토를 만났는데 수까르노 대통령의 위치를 묻던 수하르토는 아흐맛 야니 육군사령관이 없는 현재 육군 지휘권은 수하르토 자신에게 있으며 뿌라노토가 수까르노에게 가는 것을 허락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날 오후 6시, 쿠데타를 지지하며 대통령궁을 포위했던 육군부대들은 할림공군기지에 도착했으나 기지 진입허가를 받지 못해 로변에 늘어서 있어야만 했다. 수까르노가 그들에게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반란군 본부에 자리 잡고 있던 그가 명백히 반란군측 병력이 분명한 그 부대들을 왜 두려워한 것일까? 측근들은 보고르궁으로 장소를 옮겨 자카르타의 사태추이를 지켜볼 것을 권했으나 수까르노는 우선 뿌라노토 육군사령관 내정자의 도착을

기다려 보자고 버텼다. 그러나 오후 8시경 돌아온 밤방은 뿌라노토가 육군전략사령부에 있지만 할림기지 진입이 막혀있다는 사실과 육군의 모든 실권을 이제 수하르토가 쥐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수까르노는 걷어치우라며 역정을 냈지만 밤방은 마저 보고를 마쳐야만 했다. 육군전략사령부 소속 부대들이 늦어도 다음 날 아침엔 할림공군기지를 공격해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빠노 소장과 수끼모 소령의 부대들도 항복하라는 수하르토의 최후통첩을 받은 상태였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수까르노 역시 할림기지에서 반란군들과 함께 진압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수까르노가 보낸 자가용이 여섯 번째 일본인 부인 랫나 데위를 싣고 도착하자 수까르노 일행은 밤 10시 30분 경 소리소문없이 할림공군기지를 떠나 보고르로 향했다. 그 사실은 곧 수하르토에게도 보고되었고 수까르노 일행은 자정이 넘어 보고르궁에 도착했다. 진압작전 개시를 앞두고 수하르토는 대통령이 있는 적진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하는 부담 하나를 덜은 것이다.

한편 사르위 에디 위보위의 부대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디오방송국(RRI)와 통일광장을 탈환하는 등 자카르타의 상황을 신속히 장악했고 수하르토는 할림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준비를 시작했다. 나수티온은 9월 30일 쿠데타의 반란군들을 격퇴하기 위해 해군과 경찰군이 수하르토에게 전적으로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군에게는 그들이 다니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해도 명령불복종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포고문을 냈다. 수하르토는 쿠데타 수뇌부들과 수까르노 대통령, 공군소장 오마르 다니, PKI 당수 아이덜이 모여 있던 할림공군기지에도 최후통첩을 보냈다. 수까르노와 아이덜이 이곳에 함께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불분명해 요즘도 인도네시아의 호사가들 사이에선 수까르노와 PKI의 쿠데타 연루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일각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자 수까르노와 PKI 당수 아이덜이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을 찾아 할렘 공군기지에 들어간 것이라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까지나 우연이기만 했을까? 아무튼 충분한 조율없이 시작되었던 이 쿠데타는 수까르노가 보고르공으로 거처를 옮기고 오마르다니는 캄보디아로, 아이덜은 중부자바로 피신하면서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10월 2일 오후 6시를 기해 할렘공군기지는 수하르토의 손에 떨어졌고 이로써 쿠데타는 공식적으로 진압되었다. 대대적인 총격전을 예상했던 수하르토의 병력은 비교적 가벼운 교전 끝에 반란군 본부를 간단히 점령할 수 있었다.

수하르토가 보낸 최후통첩에 따라 수까르노가 할렘공군기지를 떠난 것이 쿠데타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대통령이 자기 편에서 있다고 생각했던 쿠데타군은 한순간에 버림받아 고립무원이 되어 제대로 반격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고 이제 군의 총구는 교도민주주의 체제를 받치고 있던 핵심기반 중 하나인 공산당에게 향했다. 이 사태로 희생당한 육군장교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았다.

- 아흐맛 야니 중장 (육군사령관장관 / 최고작전사령부 참모장)
- 라텐 수쁘랍또 소장 (육군사령관장관 행정담당 제2차관)
- 마스 띠르또다르모 하리요노 소장 (군사령관장관 기획 및 개발담당 제3차관)
- 시스윈도 빠르만 소장 (육군사령관장관 정보담당 제1차관보)
- 도날드 이삭 뽀자이판 준장 (육군사령관장관 병참담당 제4차관보)
- 수또요 시스위미하르요 준장 (육군장성 실사 및 법무처장)
- 삐에르 안드레아스 뎀데안 중위 (나수티온 장군 부관)
- 경비단장 까렐 삿쭈잇 뚜분 (부총리 J.레이마나 박사의 공관경비단장)
- 까땀소 다르모꾸수모 대령 (족자 빠땀가스 72 연대소장)
- 수기요노 망운위요또 중령 (족자 빠땀가스 72 연대참모장)

다음호에 계속

<경제 비즈니스>

## “진정한 부자 자룸그룹 하르또노 형제”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최고 갑부가 지방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인도네시아 최대 부호인 자룸그룹(Djarum Group) 마이클 밤방 하르또노 회장이 중부자바 주도 스마랑의 한 로컬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는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퍼졌다. 이 사진 한 장은 졸부가 아닌 진정한 부자의 소탈한 품격을 보여주었다.

중부자바 출신인 밤방 하르또노(83)는 동생인 부디 하르또노(81)와 함께 담배회사인 자룸과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은행 BCA(Bank Central Asia)를 소유하고 있다. 두 형제는 파린도 홀딩스(Farindo Holding Ltd.)를 통해 BCA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다. BCA의 모회사인 자룸그룹은 담배회사로 시작해 금융과 유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자인 하르또노 형제의 보유 재산은 약 400억 달러(약50조원)로 인도네시아 최대 부호 자리에 올랐다.

자룸 창업자는 중국에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에 정착한 두 형제의 아버지 오이위관(黃維源)이다. 1951년 오이위관은 중부자바주 꾸두스 지역에서 소규모 정향담배(rokot kretek)를 생산하는 자룸 그라모폰(Djarum Gramophon) 공장을 인수했다. 자룸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명과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서 사업이 번창했으나, 1963년 공장에 불이 나면서 위기를 맞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이위관은 세상을 하직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형제는 담배공장을 최신식 설비로 개선해, 필터 담배를 생산하고 1972년

에는 자룸담배를 해외로 수출한다. 1981년에는 자룸 슈퍼(Djarum Super) 제품을 개발해 판매가 급증하는 등 사업이 승승장구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두 형제에게는 기회로 다가왔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간 살림그룹(Salim Group)의 소유였던 BCA의 지분 51%를 두 형제가 인수해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은행으로 키우면서 엄청난 부가 쏟아져 들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유한 호텔 인도네시아(Hotel Indonesia)와 인근 호텔 단지의 운영권을 따내서 호텔을 개보수하고 대형 쇼핑몰 그랜드 인도네시아(Grand Indonesia)를 신축하는 등 호텔과 유통사업으로 확장했다. 이외에도 가전을 생산하는 폴리트론(Polytron)과 서부칼리만탄에 65,000ha 팜오일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자룸그룹은 3세 경영으로 넘어갔다. 부디 하르또노의 차남인 마틴 바수끼 하르또노가 경영권을 이어받아 글로벌 디지털 프리마 벤처(GDP Venture)를 설립해 동남아의 게임 유니콘인 가레나(Garena), 핀테크 찰르마티(Cermati), 전자상거래 블리블리(BliBli) 등 테크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4위권 전자상거래 업체 블리블리는 오는 11월 1일부터 기업공개 절차에 들어간다. 계획대로 될 경우 블리블리는 최대 8조1천700억 루피아(약 7천500억원)를 조달해 기업 가치는 약 54조5천억 루피아(약 5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테크 기업인 ‘고토그룹’(GoTo Group)이 지난 4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15조7천억 루피아(약 1조4천억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 인니 재무부, 올 3분기 경제성장률 5.5% 전망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5.01%였고, 2분기에 5.44%였다. 2022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5~5.3%로 예상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3분기에 5.5% 이상의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성이 증가한 것이 경제 성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소매판매지수가 개선됐고, 제조업 부문도 13개월 연속 확장했다. 전력소비량은 산업 부문에서 8.1% 증가했고, 비즈니스 부문에서 17.3% 증가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제조업 부문에서 가공산업이 생산력을 높여서 3분기 성장률이 매우 견조하고, 유가 인상이 경제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 둔화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와 2023년 성장 엔진이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인니 교통부, 한국에 자카르타 도시철도 4단계 개발 참여 초청

인도네시아 교통부 철도청이 한국을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4단계 개발에 참여도록 초청했다고 18일 안타라통신이 보도했다. 부디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한국이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에 참여해서, 과거 자카르타 경전철(LRT) 1단계 개발에서 우리와 했던 협력을 다시 재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날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17일 발리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 교통장관 회의 참석 후 수마디 장관은 한국 대표단과 일부 아세안 회원국 및 협력 국가에도 철도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자카르타 MRT 4단계, 자카르타 LRT 확장, 발리 LRT 개발 등에 참여해줄 것을 해외 파트너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철도청에 따르면, MRT 4단계는 자카르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1단계 구간과 통합될 것이다. MRT 4단계에서 구상 중인 세 가지 노선은

1)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에서 자카르타국제경기장까지 2) 뽀넝그데(동부자카르타)에서 조글로(서부자카르타)까지 3) 따만미니(TMII)에서 파트마와띠(남부자카르타)까지 등이다.

리살 철도청장은 예비연구를 통해 다른 경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파트마와

띠-TMII 노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트마와띠-TMII 노선은 지하와 육교 선로가 함께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철도공단은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PT.MRTJ)와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한국 철도공단에 따르면, 자카르타 MRT 4단계 사업은 자카르타 파트마와띠(Fatmawati)에서 따만미니(Taman Mini)를 잇는 총 연장 12km로, 역 1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만든다. MRT 건설 및 차량 조달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약 1조 5000 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는 철도공단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특히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4단계 사업 계획, 건설, 운영, 자금조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철도공단은 지난 2019년 자카르타 LRT 1단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자카르타 경전철(LRT) 2단계 구간 타당성조사(PMC)와 LRT 운영역량 강화 용역을 수행 중이다.



## 조코위-마루프 정부 지지율 하락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와 시민의 자유 축소라는 비난 속에서 3년차 말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조코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법 집행에 대한 신뢰 하락이다.

일간 콤파스 산하 연구기관 릿방 콤파스(Litbang Kompas)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하락했다.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콤파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1월에 73.9%에서 6월에 67.1% 그리고 10월에 62.1%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응답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수준 95%, 오차율 2.8%였다. 조코위 정부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불만족)라고 답한 응답자는 6월에 32.9%에서 10월에 37.9%로 늘었다. 정부의 법 집행 정책에 수긍한다고 답한 비율이 1월에 65.9%에서 6월에 57.5%, 10월에 51.5%로 하락했고, 이는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월에 70.5%에서 6월에 63.5%, 10월에 52%로 하락했다. 10월 여론조사에서 조코위-마루프 정부는 출범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부만이 아니라 경찰도 최근 조사에서 대중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 조사보다 17% 이상 하락해 49%를 기록했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 이상 하락해 52%를 기록했다.

최근 수개월 간 경찰과 노프리안사 요수아 후따바랏 살해 사건과 이를 덮으려던 시도, 그리고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된 테디 미나하사 동부자바지방 경찰청장 등 일련의 스캔들로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월 1일 경찰이 간주루한 경기장에서 운동장에 난입한 축구 팬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비판이 가중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말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관, 등기소 직원 2명, 기타 직원 2명이 체포되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즉시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인권단체 콘트라스(Kontras)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코위-마루프 행정부의 첫 3년 동안 민주주의 관행이 후퇴하고 자유가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콘트라스의 보고서는 시민 공간 축소, 정부 비판가와 언론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 만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판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전자정보거래법(ITE), 시위대 해산 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특히 주목했다. 또한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고, 경찰 개혁과 과거의 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보았다.

## 간자르 주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계 합종연횡 가속화

조코위 대통령, 간자르 주지사 지지할 듯

2024년 대선 유력 후보인 간자르 뿌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가 차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대선 주자와 정당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간자르 주지사는 지난 18일 통합인도네시아연합(KIB, Koalisi Indonesia Bersatu)의 일부 지구당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KIB는 민족주의 성향의 골카르당과 이슬람 성향의 국민수권당(PKB), 통일개발당(PPP) 등 3개 정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뭉친 정당연합이다. 투쟁민주당(PDIP) 소속인 간자르 주지사는 독점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PDIP 총재의 대선 후보 공천을 기다렸으나 침묵이 계속되자, 자당이 아닌 일부 KIB의 후원을 받아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뿌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가 그린드라당과 국민각성당(PKS),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주지사가 민주민족당(Nasdem)의 각각 지지를 받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간자르 주지사는 이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투쟁민주당의 정치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투쟁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간자르 주지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도를 넘는 결정이라며, “대선 출마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현을 한 것일뿐 대선 후보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간자르 후보는 그동안 대선을 겨냥해 주정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를 확보하는 등 사전에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간자르 주지사가 차기 대선 유력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메가와티 총재는 친딸 뿐만 아니라 마하라니 국회의장을 대선 후보로 염두에 두면서 간자르를 따돌렸다.

국립 국가연구혁신국(BRIN) 피르만 노르 연구원은 “KIB에 합류한 이슬람 성향을 띤 PAN과 PPP 당의 지지자들이 민족주의 성향의 간자르 주지사보다는 아니스 대선 후보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디띠야 빠르다나 정치전문가는 간자르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투쟁민주당이 KIB를 비롯한 여타 정당들과 정치 연합을 위한 합종연횡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적인 저널인 컨버세이션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킹메이커라고 호칭하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간자르 후보를 후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간자르 주지사를 지지하는 3가지 이유는 첫째, 간자르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음. 둘째, 간자르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과 같은 지역인 중부자바주 출신으로 문화와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 셋째, 메가와티 총재가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뿐만 국회의장보다 간자르 후보가 좀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10월호에 이어서 ‘같은 어근이지만 접미사 {-i}와 {-kan}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 모음’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 ▷ **memperingati** Tanggal 10 November **diperingati** sebagai Hari Pahlawan.  
11월 10일은 영웅의 날로 기념하는 날이다.  
Kedutaan Besar Swiss di Jakarta **memperingati** 50 tahun kerja sama pendidikan vokasi yang terjalin dengan Indonesia.  
주인도네시아스위스대사관은 인도네시아와 직업교육협력을 50년간 이어 온 것을 기념했다.
- memperingatkan** Myanmar **memperingatkan** bahwa tekanan dari ASEAN akan berimplikasi negatif. 미얀마는 아세안의 압박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mengingatkan** Kementerian Kesehatan **mengingatkan** pentingnya pemeriksaan kontak erat pasien tuberculosis (TBC).  
보건부는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Tolong **ingatin** aku, ya”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나중에) 상기해줘, 알겠지?”
- ▷ **menyedihi** (없음)  
**menyedihkan** Pada Sabtu sekitar pukul 22.00 waktu setempat terjadi peristiwa **menyedihkan**. 현지시각 토요일 22시경 슬픈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인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어나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  
**menyedihkan** ~를 슬프게 하다



▷ menyakiti

Jangan **menyakiti** dirimu.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마.

Setiap manusia pasti pernah **menyakiti dan disakiti** orang lain.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한다.

menyakitkan

Malam yang menyakitkan bagi Barcelona.

바르셀로나 팀에게 아픈 밤. (경기에 지고)

Dia bilang “**menyakitkan** rasanya” setelah 13 tahun membina rumah tangga, mereka berujung cerai.

그는 13년간 가정을 꾸렸지만 이혼으로 끝나 “마음이 아프다” 라고 했다.

▷ meninggali

= tinggal di

Dia bercerita tentang sepasang suami istri yang meninggali rumah tua di daerah pinggir kota. 그는 도시 변두리에 낡은 집에 사는 어떤 부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NASA menemukan ‘Bumi Super’ . **Bisa ditinggali?**

나사(NASA)는 슈퍼지구를 발견했다. 과연 살 수 있을까?

(Apakah Bumi Super itu bisa ditinggali?)

(Apakah manusia bisa meninggali Bumi Super itu?)

meninggalkan

Dimohon kepada seluruh wisudawan untuk **tidak meninggalkan tempat** untuk berfoto bersama.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Apakah hal tersebut bisa diartikan bahwa Prabowo mulai **ditinggalkan** oleh para loyalisnya? 그 것을 프라보워의 열성지지자들이 프라보워를 떠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인지?

Cerita para pekerja yang **meninggalkan pekerjaan impian** demi kenyamanan hidup. 꿈의 직업을 버리고 편안한 삶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Cara Bersihkan Mesin Cuci agar Awet dan Tidak **Meninggalkan Bau** pada Pakaian 세탁기를 오래 쓰는 방법, 그리고 옷에 냄새가 베이지 않게 하는 방법.

{-i}, {-kan} 접미사가 각각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meN-i}, {meN-kan} 단어 전체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만 알면 되니까, 항상 어근과 비교해서 {-i}가 붙으면 어떻게 되고, {-kan}이 붙으면 어떻게 되고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호와 이번호에 이어서 알려드린 같은 어근이지만 {-i}, {-kan}이 붙는지에 따라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는 건 몇 가지 없거든요. 평소에 무조건 많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언젠가는 접미사 구분이 신경 쓰이지 않고 그 단어 통째로의 의미로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어학과정 1년을 다녔다고 해서 문법을 마스터하는건 아니지요. 소개정도를 받은 것 이랄까요. 진짜 공부는 그 다음부터 하는 읽기 공부예요. 문법을 한번 배운건 공식을 배운 정도이고, 실제 문제를 푸는 건 읽기 연습이 훈련이 되어야 그 공식이 내 것이 되는 거죠

### 이제 {ter-} 접두사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ter-} 접두사가 형용사나 부사 어근에 붙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건 너무 쉬우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알고 있으면 쓰기 좋을 만한 예문하나 공부해 봅시다.

**terbaik** (the best), **tertinggi** (제일 키가 큰, (높이가, 가격이) 제일 높은),  
**terbanyak** (가장 많은)

★Indonesia akan menjadi negara dengan **ekonomi terbesar keempat** dunia pada 2045.  
인도네시아는 2045년에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Tragedi tersebut merupakan **tragedi terbesar dalam hampir satu dekade** belakangan setelah tragedi Sewol.

이번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10년만에 일어난 가장 큰 참사이다.

※ {ter-} 접두사가 붙은 명사 단어도 있는데, 이건 동사를 먼저 익힌 후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ter-} 접두사가 붙어서 동사가 되는 경우

먼저 쉬운 예시로 2가지씩 공부해보고, 다음 12월호에서 더 많은 예문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1] 우연히, 고의가 아닌,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terbangun** (눈이 스스로 떠져서) 깨다

☆☆☆누군가가 깨워서 일어나면 **dibangunkan**

Semalam aku **terbangun** beberapa kali. 어젯밤에 자는데 몇 번이나 깼어.

Saya biasanya **bangun** jam 6. 저는 보통 6시에 일어나요.

Waktu kecil, saya selalu **dibandungkan** ibu saya. 어렸을 땐 엄마가 늘 깨워줬어요.

★**terinjak** (누군가가 실수로 밟아서) 밟히다

Tadi di subway kakiku **terinjak**. 아까 지하철에서 누가 내 발을 밟았어. (모르고 밟음)

Bagi sebagian orang, proses membuat mi yang **diinjak-injak** kaki menjijikan, tapi mi jadi kenyal karena proses ini. 면을 발로 밟아서 만드는 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면이 쫄깃해진다.

[2] ter- = dapat + di \*몇 가지 단어 예시를 문장 속에서 공부하고 기억하세요.

★**terdengar** = dapat didengar 들리다

Ledakan **terdengar** di beberapa wilayah di Ukraina.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Terdengar** teriakan minta tolong. 도와달라며 소리치는 게 들렸다.

★**teringat** = dapat diingat 기억이 나다

Dia teringat kepergian adiknya. 그는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난 일이 생각이 났다.

[3] 어떠한 상태로 있는 \*단어 예시를 통해 공부해 봅시다.

★**terbalik** 거꾸로 되어 있다

Bendera Merah Putih terpasang **terbalik**. 인도네시아국기가 거꾸로 게양되어 있었다.

★**tertutup** 닫혀 있다

Orangnya agak **tertutup**. 사람이 약간 내성적이야.

12월호에 이어서 {ter-} 를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질문 대환영 [kayakarya@naver.com](mailto:kayakarya@naver.com)



—여기가 맛집!—

## Bella's La Cucina Italiana

황지영 (PT. Prime Freight Indonesia)



여러분~안녕하세요 이번 11월 호부터 자카르타 맛집 탐방을 맡게 된 황지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눈도 입도 즐거운 맛집들 열심히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호에서 소개해 드릴 식당은 이탈리아 식당 **Bella's La Cucina Italiana**입니다. PIK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식당은 오픈 한지 1년이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곳이라, 핫한 인플루언서들의 피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예약은 필수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맛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잠시 이탈리아를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게 인테리어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입구부터 가게 내부까지 인테리어가 정말 한곳도 예쁘지 않은 공간이 없는 데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음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피타이저로 Burratta and tomatoes(125,000루피아++)입니다. 부라타 치즈, 토마토, 구운 방울토마토, 올리브오일, 발사믹 글레이즈, 바질 잎만을 이용한 요리이지만 식욕을 돋우는 애피타이저로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라타 치즈는 쫄깃하고 크림리한 식감으로 치즈 특유의 구릿한 냄새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많은 샐러드 요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요. 자카르타에서는 아직 부라타 치즈를 사용하는 식당을 찾아보기 드물기 때문에 한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은 양과 샐러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느끼실 수 있지만, 다른 요리들이 자칫 느끼하고 질리게 느껴질 즈음, 부라타 치즈의 고소함과 토마토의 상큼함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른 요리와 같이 곁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요리로 넘어가서 추천드릴 메뉴는 Escargot(135,000루피아++)입니다. 갈릭버터에 구운 에스카르고가 갈릭버터에 볶은 시금치와 프로슈토(이탈리아식 햄, 하몽과 유사)에 감싸져 있고 그 위에 버터에 튀겨진 다진 마늘 플레이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갈릭버터의 풍미와 짭조름한

프로슈토, 볶은 시금치가 달팽이와 너무 잘 어울려요. 한입 넣자마자 유향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스 카르고 껍질은 이미 까져서 요리되었기 때문에 드시기도 편리할 겁니다. 한 접시에 6개 정도가 나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파스타를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Tagliatelle Bistecca(175,000루피아++)입니다. tagliatelle는 우리가 아는 일반 파스타의 면이 아닌 넓적하고 굵은 파스타 면입니다. tagli는 이탈리아어로 ‘자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칼국수처럼 얇게 반죽해서 돌돌 말아 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때문에 식감도 칼국수랑 조금 비슷하실 거예요. 데미글라스 소스에 버무려진 tagliatelle 위에 후추로 간을 한 스테이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는 토마토나 크림이 아닌 데미글라스라는 소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색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데미글라스는 프랑스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브라운소스(비프 스톡을 베이스로 토마토 페이스트, 각종 야채와 향신료를 넣고 졸인 소스)에 와인을 넣고 다시 졸인 소스입니다. 정통 유럽 가정식 파스타의 느낌입니다. 시도하시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추천해 드릴 파스타는 Spagetti Pescatrice(155,000루피아++)입니다!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타입으로 위에 새우와 오징어튀김, 마늘 플레이크, 구운 방울토마토가 토폭 되어 있어요. 해산물 향 때문에 느끼하지도 않을뿐더러, 올리브오일과 마늘의 풍미를 입안 한가득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참! 여기서 제가 언급한 해산물 향은 절대 비리다는 의미는 아니랍니다. 꼬들 꼬들한 오일 파스타를 맛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요리는 Truffle Meatball Pizza(185,000루피아++)입니다. 트러플 크림, 양송이버섯, 트러플오일, 모차렐라, 미트볼이 들어간 이 피자는 아! 나는 진짜 트러플 풍미를 정말 좋아한다! 하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트러플오일과 버섯만 있었다면 자칫 느끼할 수 있지만 짭조름한 미트볼이 곁들여져 중독되는 맛입니다. 단! 트러플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세요!

이 집 요리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소스나 재료들로 요리되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이 되실 것이고 이 가격대에 이런 퀄리티라면 안 가보고는 못 배기실 거예요. 게다가, 가게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예쁜 바에서 음료와 술을 제조하고 있는 바텐더도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 다양한 와인, 칵테일, 맥테일도 있으니 요리와 같이 곁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과 함께 이탈리아 요리 어떠세요? 저는 12월에 맛있는 맛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식당 정보 : Bella's La Cucina Italiana>

음식 종류 : 양식

가격대 : Rp 250,000-3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1:00~22:00

주소 : Jl. Pantai Indah Kapuk No.18  
RW.2, Kamal Muara, Kec. Penjaringan,  
Kota Jkt Utara, Jakarta 14470

※ Google 참고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 역량강화 연수



장윤하 KOSA 회장



이상훈 신한은행 부장



행복경영연구소  
박시호 이사장(초청강사)



최명식 대표 (AGRO  
TEKNIK MANDIRI)

재인도네시아 한인중소기업협의회(KOSA)는 지난 10월 14일 짜카랑 자바팔리스 호텔에서 한인중소기업협회 회원사 70여명을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하여 한국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KOSA 회장인 장윤하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연의 문을 연 신한은행 이상훈 부장은 유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화법으로 회원사들의 최근 주 관심사인 ‘2022년 마무리를 위한 외환시장 이슈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러/루피아 환율의 흐름 예상 및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 강의하였다. 특히 루피아가 그동안 다른 통화 대비 선방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도네시아 무역 흑자로 인한 것’이라는 명쾌한 설명으로 향후 루피아의 행보를 예측해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어서 오롯이 이날 강연을 위해 한국에서 오신 행복경영연구소 박시호 이사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다가온 IT 시대와 행복 경영을 통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이날 박 이사장은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분위기를 이끄는 동시에 많은 IT 혁신을 이룬 회사들의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전국 수천명에게 보내는 행복편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전달하고 있는 박 이사장은 이날 재인니 한인기업인들에게 행복이라는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강연을 하였다.

강연의 마무리를 장식한 와인&커피 전문가 최명식 대표는 감성있는 목소리로 와인&커피로 배우는 경영에 대해 강의하였다. 현대인들이 잘 알고 마시고 있는 커피와 와인이지만 더욱 유익하고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 강의하였고, 특별히 강연 후 루왁커피 시음을 통해 청중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하며 재인도네시아 한인중소기업협의회(KOSA) 역량강화세미나가 마무리 되었다.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재인도네시아 한인중소기업협의회(KOSA)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2022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합니다.

현지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책방향과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듣고 진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2. 11. 23 (수), 14:00~16:30
-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자카르타
- 일정안내

시간	내용	비고
14:00~14:30	(오프닝) 행사 소개 및 인사말씀	
14:30~15:10	(세션1) OSS RBA 시스템 도입에 따른 투자관련 제도 변경사항	투자부
15:10~15:50	(세션2) 노동법 개정사항 및 인사노무 관련 진출기업 유의사항	노동부
15:50~16:30	(세션3) 2022년 인도네시아 세법 개정사항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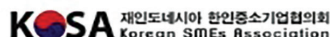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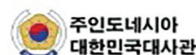
※ 발표 30분, 질의응답 10분 / 한국어-인니어 동시통역 배치

## ■ 신청방법

- 이메일(sports7574@gmail.com) 접수 \* 11월 18일(금) 까지 70명 선착순
- 기업명, 참석자 성명 및 직위, 휴대폰번호, 이메일 기재
- 투자, 노무, 국세 분야 사전질의 및 건의사항 기재

## ■ 문의처 : KOSA 천상연 운영위원

✉ sports7574@gmail.com ☎ 0812-1479-1535





떠나야 보이는 것들



작가 가쓰시카 호쿠사이 :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 “있는 곳에 물들지 말 것”

글: 손예리(일본어 번역가)

일본 에도시대(1603~1867)의 풍속화 ‘우키요에’는 19세기 말, 서양 미술에 큰 흔적을 남긴 채색 목판화이다. 그중 가쓰시카 호쿠사이(1760~1849)는 단연 명실공히 일본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우키요에 화가로, 모네와 반 고흐 등 서양의 인상파 화가들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대표작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비롯해 다수의 작품은 그의 나이 70세가 넘어 그린 것들이다.

사납게 치솟은 파도의 물보라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에 큰 영감을 받았던 반 고흐는 자신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의 소용돌이치는 하늘을 통해 그 기법을 표현했다. 작곡가 드뷔시도 호쿠사이의 이 작품에 감명을 받아 교향곡 ‘바다’를 완성했다.



Art&Science에서 만난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의 대표작

이런 호쿠사이에게 매우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바로 평생 동안 아흔 세 번 이사하고 서른 번 넘게 자신의 호를 바꿨다는 점이다. “있는 곳에 물들지 말 것”, 그가 좌우명으로 삼은 신조다. 현실에 안주하며 정체되는 것을 싫어했던 그는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며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았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괜한 불안으로 앞날을 걱정하지도 않았다.

거처를 새로 옮길 때마다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의 사물을 바라보고 심기일전해서 자신 앞에 놓여진 일들을 즐겁게 해 나갔을 호쿠사이의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한국에서 7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하는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머물고 있는 지금, 어쩐지 정감 가는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멋진 카페들과 세련된 인테리어 센스들을 마주하며 나는 미처 몰랐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오늘도 새롭게 발견하고 감동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국인 한국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온통 생경한 풍경과 언어와 사람들 사이에 놓일 때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 비정상회담 타일러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파란 점이 파란 바지에 있으면 눈에 띄지 않지만 하얀 바지에 있으면 비로소 돋보이게 된다’ 는 것이다. 이렇듯 외국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법이다.

전혀 다른 언어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한국에서 모두들 쫓고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삶’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된다.

남들이 뭔가를 하면 따라서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유행이다 싶으면 모두들 우르르 대세처럼 따르는 한국의 분위기를 종종 느끼는데, 다른 언어를 알고 외국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에 의문이 생기고 좀 이상해 보일 때가 많다. 세상은 정말 넓고 저 우주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 중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고 우리 개개인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 내가 속한 사회나 주변인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외국에서 삶을 산다는 건, 나와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하길, “장소는 우리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만큼만 특별해진다.” 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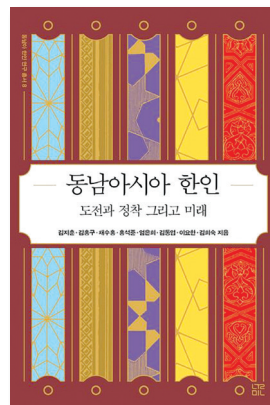
긴 인생에 있어 잠시라면 잠시일 수 있는 몇 년간의 주재생활. 오랜 세월 머물러왔던 모국을 떠나 낯선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호쿠사이가 말한 ‘있는 곳에 물들지 않고’, 다시 한 번 삶을 생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 동남아와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에 대해 알고 싶다면

### 동남아시아 한인: 도전과 정착 그리고 미래

김지훈, 김홍구, 채수홍, 홍석준, 엄은희,  
김동엽, 이요한, 김희숙 저자(글)  
눌민 | 2022년 05월 20일 출시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한 번쯤 부딪히는 질문이 아닐까? 재외한인, 동남아시아 거주 한인,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인도네시아 한인은 이주자일까 이민자일까? 그 답을 책 <동남아시아 한인: 도전과 정착 그리고 미래>에서 찾아보았다.

<동남아시아 한인: 도전과 정착 그리고 미래>는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자 8명이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과 한인공동체에 대해 쓴 책으로, 2022년 5월에 눌민출판사가 펴냈다. 이 책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이주자를 1년 이상 본국이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즉 1년 이상의 유학생과 3~5년 사이의 해외 주재원 모두 이주자로 분류하는 것. 이민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 정의한다. 동남아 한인의 주류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정주와 마찬가지로의 삶을 이어가는 ‘체류형 이주’ 이거나 주재원이 행하는 ‘순환이주’ 형태를 가진다.

연구자들은 동남아 한인들이 초국적 이주민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주민들은 모국과 정착국가 양국을 넘나드는 삶을 살아가며,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두 국가에 각각 거주지를 유지하며, 두 국가에서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들은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과거 미국이나 러시아 이민자들이 현지 사회에 동화되는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 책은 동남아 거주 한인들이 대체로 현지에 동화되는 정도가 낮다고 보았다. 또한 발달된 미디어와 인터넷 기술 그리고 한류와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스스로 상상의 공동체인 ‘한인’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진다고 썼다.

동남아 한인의 또 다른 특성은 한국을 떠날 때는 스스로를 이민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에 정착하는 것. 이는 이주국가의 이민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외국인의 정착을 허용하는 제도가 서서히 만들어졌고, 한인들이 이에 대응하면서

영주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이주했다가 사업비자나 은퇴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주화하고,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은 한국 기업 주재원으로 정주하다가 이후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실상 그 국가에 정착하는 사례가 많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동남아에는 다양한 한인 유형이 공존한다고 말한다. 영어와 중국어를 필두로 자녀의 외국어 습득과 국제학교 교육을 통한 ‘문화 자본’을 추구하는 교육이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2000년대 중반에 정점을 이루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은퇴이주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은퇴이주비자를 통해 자녀의 교육이주와 본인의 사업 시도를 도모하는 사례도 흔하다.

한국계 기업이 대규모로 이전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에서는 대기업 주재원, 중소기업 경영자와 관리자, 자영업 종사자 등 유망형 이주가 주를 이룬다. 해외에서 성장한 한인들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해 이주하는 글로벌 인재 이민은 싱가포르 한인 이주의 한 축이다. 여기에 더해 한인과 현지인의 국제결혼 가정의 구성원들이 향후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동남아 한인 사회 형성과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로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잔류), 베트남전쟁(민수 조달 관련 일 종사하다가 인접국가로 이동해 정착), 1980년대 이후 한국기업의 동남아 진출, 1997년 한국 경제위기(동남아 주재원들이 현지 국가에 정착·영주) 등을 꼽았다.

이 책에 따르면, 동남아는 한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인사회도 여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동남아의 경제적 동반성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국 해외직접투자(FDI) 시초는 1968년 인도네시아 목재업에 투자한 코데코(Kodeco, 한국남방개발)였다. 이처럼 한국의 후기 산업화와 한국기업의 세계화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진행됐다. 또한 1990년대부터 한국-베트남과 일본-태국의 예처럼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은 글로벌 생산체제 내에서 상호 밀착 관계를 형성하며 고속성장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글로벌 생산체제의 밀착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에 거주하는 한인은 20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전체 동남아 한인 수는 1970년대 1만 명 수준에서 1980년에 5,482명, 1999년에 4만463명, 그리고 2009년에 28만5,936명, 2019년 36만4,276명으로 급증한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별 한인 수는 베트남 17만2,684명(영주권자 274명, 시민권자 13명/전체 한인 중 0.2%), 필리핀 8만5,125명(영주권자 1,367명, 시민권자 22명/전체 한인 중 1.6%), 인도네시아 2만2,774명(영주권자 2,153명, 시민권자 690명/전체 한인 중 12%), 싱가포르 2만1,406명(영주권자 2,646명, 시민권자 447명/전체 한인 중 14%), 말레이시아 2만861명(영주권자 331명, 시민권자 297명/전체 한인 중 3%), 태국 2만200명(영주권자 128명, 시민권자 77명/전체 한인 중 1.0%) 순이다.

1장에서 사회학자 김지훈은 글로벌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한인사회를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 라고 묘사하며, 1960년대 말에 주재원 중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학생과 개인 사업자가 더해지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한인이 증가해 ‘글로벌 도시 이민 사회’ 가 됐다고 썼다. 특히 싱가포르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의 수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한인사회가 공동체 수준에서 이민사회로 변모하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2장에서 인류학자 홍석준은 말레이시아 한인사회를 말레이시아의 이주정책인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프로그램’ 과 ‘빗장 공동체(gated community)’ 로써의 한인 사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말레이시아 한인은 기러기 가족이 과반수를 점하는 가운데 주재원과 자영업자들이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장에서 정치학자 김홍구는 한인들이 태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와 과정, 일상적 삶 속 한인들의 생활양식과 정체성, 한인과 현지인과의 관계와 갈등 양상, 한인이 현지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과 초국가적 정체성에 대해 다루었다.

4장에서 지리학자 엄은희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사를 통해 한국기업과 한인이 큰 규모로 진출해온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지속적 교류와 발전 가능성도 전망한다.

5장에서 정치학자 김동엽은 이주 시기별 필리핀 한인의 성격과 국가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필리핀의 경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한인들의 인식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낮을 때는 필리핀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나 초국가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을 때는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6장에서 인류학자 채수홍은 베트남의 혁신정책(도이머이) 이후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쇄도하며 한인 사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 그에 따른 한인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 사회경제적 분화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한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조망했다.

저자들은 동남아 한인 사회의 미래는 한국과 동남아 간 경제협력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동남아 한인 사회는 현지화와 현지인과 관계 형성, 외국인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으로서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







## 한산도함 자카르타 입항

2022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함인 한산도함이 자카르타에 입항해 10월 10일에서 13일에 걸쳐, ‘입항환영행사 및 함정견학’과 ‘함상리셉션’을 열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자카르타를 찾은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2022년 9회째 해군사관학교 제 77기 사관생도 164명의 순항훈련을 위해 110일간 9개국, 10개항을 순방하는 일정 중 자카르타에 10월 10일 입항하였다.

이날 판중 뿌리옥항 JICT II 부두에서 열린 입항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과 손한평 한인회 수석부회장, 이세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도네시아지회장 등을 비롯한 교민 약 100명이 참석해 순항훈련전단을 양국의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마르 파북 3기지 사령관(준장)과 인도네시아 해군 지휘참모대학 교육생 등 50여 명이 나왔다. 강동구 전단장(준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세안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일 진해항을 출발한 순항훈련전단은 베트남 호찌민과 말레이시아 클랑, 인도 첸나이를 거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입항했다.

이어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와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피지 수바, 미국 하와이와 괌 등에 기항할 계획이다.

한산도함은 대한민국 해군 함정(艦艇) 중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건조된 훈련함(ATH, Auxiliary Training ship Helicopter)이다. 이전까지 해군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차출해 해상 실습 훈련용으로 활용해 왔다. 스텔스 기술(Stealth Technique)을 적용한 함정으로 전체 길이 142m, 높이 18m, 배수량(排水量) 4500t급이다. 최대속력은 24kts(시속 44km)이고, 순항속력 18kts(시속 33km)로 이동하면 7,000마일(약 11,3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다. 실습실에는 모의 전투 실습이 가능하도록 최첨단의 컴퓨터 기반 훈련(CBT, Computer Based Training)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중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수술실과 진료실 및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어 해상에서 전상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 처치가 가능하다. 두 대의 해상 작전헬기를 격납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지상 병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 전시에는 병원선으로 활용된다.

교육 임무에 배치되어 함정 실습과 순항 훈련 등을 지원하고, 해난 및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구조 활동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 여러분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헬렌 하르소노 (Heylen Harsono)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지난달에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개천절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참석하신 손님들에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 Bapak Alexander - 동유럽 외교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한 표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정보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를 갖고 하나로 뭉쳐 일본 식민제국을 이겨냈고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나라로, 철학을 갖고 있는 주권국가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 Ibu Wijayanti -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모든 장면마다 완벽한 드라마 셋팅을 볼 수 있거든요. 연기자들도 의상이나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신발까지 역할에 딱 맞는 모습을 하고 나오구요. 극에 대한 아이디어는 심플할지 몰라도, 시청자로서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연출되는 것 때문에 즐겁죠.

### Bapak Adam - 인도네시아 외교부

저는 인도네시아 정부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후에도 빨리 직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고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길거리 뮤지션이 되거나, 교회나 복지재단에서 행정적인 일을 돕거나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바쁘게 일하면서 틈을 내 공부를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유심히 관찰했던 또 다른 특징은 대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그다지 오픈 마인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6개월간 생활하며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요. 아마 한국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Ibu Tantawi - 가정주부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 모두 한류세대예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딸들이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 첫째 딸은 김치, 라면, 떡볶이, 어묵, 불고기, 비빔밥, 짜장면 같은 한국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저희 딸이 좋아하는 한국 식당엘 꼭 가요. 둘째 딸은 약간 톰보이 기질이 있어서 태권도를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꾸준히 태권도를 했어요. 학교에 태권도 특활수업이 있었거든요. 둘째 딸은 한국 노래도 좋아해서 자카르타나 싱가포르에서 하는 거의 모든 콘서트에 빠짐없이 갔을 정도예요. 막내딸은 이제 16살인데, 한국 화장품

품을 너무 좋아해서 학생용으로 나오는 화장품은 거의 다 써봤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리뷰도 올려요.

저희 딸들을 보면, 엄마로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외국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 문화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면 음주문화 같은 것은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죠. 한국에는 음주문화가 있잖아요. 한국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하거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 보다는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답답함을 푸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022년 10월4일, 국경일행사  
한국문화체험부스

### Bapak Eko Nugroho - 가구 사업

저는 35년째 한국으로 가구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국인들과 파트너로 사업하면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겪었지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죠.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정신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사업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분야별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회를 만들면, 정부가 나서서 세금 지원도 해주고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이자도 낮춰주고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한국의 이런 노력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구 수출업이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죠.

### Bapak Hasan - 국방부 장관 전문보좌관

저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가면,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안전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어서 범죄 발생률도 낮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지정학적 문제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다는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위협에 늘 긴장을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국가로서 한국으로부터 참수함을 도입했고, 또 머지 않은 때에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전투기도 획득하게 될 겁니다.

(번역: 민선희)



## 새벽 길



김 준 규 시인 / 수필가 / 한인문인협회 회장

jinn.kim@outlook.com



하루가 저물면 지치고 혼탁한 밤공기는 조밀한 어둠의 섬유 층을 투과하며 끈끈한 침묵의 손으로 세상을 잠 들게 한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 생존을 위한 공간을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고 어둠이 찾아오면 지친 심신은 눈을 감고 휴식에 들어간다. 절묘하게 짜여진 낮과 밤의 배분, 그 전능하고 조화로운 일상들. 안식으로 정지되었던 밤의 시간은 아침이라는 새 출발의 깃발을 달고 환희에 찬 하루의 관문을 준비한다. 숲속에서 만나는 새벽공기는 언제나 싱그럽고 내 딛는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다. 봄가뭄이 한동안 지속되고 목마른 대지는 갈증으로 어깨를 늘어뜨릴 때, 만개하지 못한 꽃잎은 고개를 숙인 채 비를 기다리고 있다. 다행이도 오늘 아침은 거리에서 물을 만났다. 인적의 놀림으로 곱게 다져진 흙길 군데군데에 쟁반만한 물웅덩이가 있는걸 보니 밤사이 빗줄기가 한차례 지나간 모양이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듯이 이 세상 만물이 단 한순간이라도 물과 멀리하고 살 수 있을까? 먼지 속에서 햇빛과 동화작용으로 종일토록 찌든 풀잎이 수정 같은 새벽 이슬을 달고 있는 모습이 더없이 초롱초롱하다. 호숫가를 한 바퀴 돌 무렵인가, 물안개는 연기 처럼 피어오르고 지평선에 비스듬히 솟아나는 햇살이 오색 현란한 광채를 머금으며 안개 속을 투과한다.

후각을 자극하는 상쾌한 공기, 발걸음은 눈이 없어도 인지된 감각으로 방향을 찾아간다. 생각은 떠오르는 무엇이든 가릴 것이 없고 편편히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도 상상의 바탕이 된다. 혼자만이 얻을 수 있는 호젓한 산책길의 행복! 길가에 군락을 이루고 함초롬 피어나는 루엘리아. 아! 여리고 청순한 보랏빛이 여명 속에서 웃고 있다. 긴 가뭄에 질긴 잎새로 얼굴을 가리고 흔들리던 사랑의 꿈을 키워왔으리라!

바람은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듯 잠잠하고 창호빛 구름 속에서 한 무리 제비가 내려와 호숫가를 선회하며 날개를 비틀어 솟구친다. 작은 물고기도 뒤 질세라 덩달아 은빛 비늘을 흔들며 물을 박차고 뛰어 오른다. 길가에 아침 이슬을 찾아 느릿느릿 기어 나오는 지렁이가 미끌미끌한 오색을 발산하며 길을 건넌다. 아뽀! 너의 원수, 해가 곧 중천에 떠오를 텐데 죽음이 두렵지 않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전에 나는 생각을 비틀었다.

“에라 모르겠다!”

사건에 대한 무관심은 때로 판단을 유보하고 고민의 부담을 털 수 있어 좋다. 여명을 헤치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젊은 부부가 지렁이를 피해 웃으며 다가온다. 산책길에 가끔 만나는 다정한 커플이다. 젊음의 열기가 얼굴을 붉게 하여 잘 익은 홍시처럼 아름답다. 또 겹치는 생각에 토씨를 추가하였다.

‘나도 너희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감각에 예민하고 물질에 눈이 밝던 시절도 어느 날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겹먹은 들소처럼 심약한 노년의 여정에서 한 가닥 의지할 것은 그나마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아침 산책이 이처럼 좋은 운동으로 생활의 일부가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업무에 시달리느라 건강엔 별로 개념이 없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지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것이 운동의 전부였다. 골프 역시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일 년에 몇 차례는 감기 몸살은 물론 계절 독감에도 곧잘 걸리곤 했다. 코로나 19 시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듯하다. 절제된 외출과 마스크의 사용 규칙적인 섭생을 통하여 변화된 건강을 찾게 되었다. 3년여 감기 등으로 병원에 가지 않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이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마시는 새벽 공기가 상큼하게 가슴을 적시며 들어온다.

# 그 시절의 영웅

원작: 최호열

작가: 최재연(JIKS, 10학년)



## Chapter 1: 남다른 어린 시절

호열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더 많다. 호열이 중학생 때부터 중병을 앓은 아버지와는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오직 아픈 기억뿐이다. 머리가 굽어지며 유독 꼬장꼬장하고 엄격한 성격의 아버지와는 대화하기 더더욱 힘들어졌다. 의류 공장 일로 바쁘셨던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돌보셨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서는 늘 공장 기름 냄새가 났다. 코를 찌르던 냄새가 익숙해져 어머니의 냄새가 되어버린 시간 동안 호열은 무력무력 자랐다.

어릴 적부터 조숙했던 호열은 사춘기도 유별났다.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시작된 열다섯의 반항. 바리깡으로 파르라니 깎은 머리와는 달리 실타래처럼 엉킨 머릿속. 아예 학교를 가지 않는 날라리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모범생도 아니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발목을 잡았던 가난은 공부를 열심히 한들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

백제의 유물인 몽촌토성이 위치한 호열의 고향 풍납동은 해마다 물난리 나는 동네로도 유명했다. 호열은 별건 흠이 수마에 휩쓸려가는 광경을 보며 자랐다. 호열의 반항이 물살처럼 거세질 때쯤

풍납동에 또 한 번의 물난리가 났다. 동생과 학교를 가던 호열은 무릎까지 불어난 개울 물 때문에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뿔싸! 순식간에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본능적으로 집으로 달려간 호열과 동생은 물이 찰박거리는 1층 계단을 건너 뛰어 4층 빌라의 꼭대기로 향했다. 바깥가랑이가 젖는 것쯤 상관 없었다.

꼭대기 층에 도착하고 나서야 호열과 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층까지 차오르던 물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 꼭대기 층에 위치한 호열의 집은 대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밖에는 물이 넘치는데 정작 집에 물이 끓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심각성을 깨달은 호열과 동생은 커다란 빨래통과 튜브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사방은 물 천지였다.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비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서 깨끗한 물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히 슈퍼 주위를 맴돌다 물을 구할 수 있었다.

집에 갇혀 지낸 지 삼 일째.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갇혀 지내던 호열은 튜브를 타고 모험을 떠났다. 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듯 물살을 가르며 동네를 누볐다. 호열이 물속에 빠진 물건들을 노로 건져 올리자 동네 형들도 따라 나와 안경,



가방, 책 등을 낚았다. 그날 호열이 건져 올린 것은 물에 빠진 물건들만이 아니었다. 10일 간의 고립으로 호열은 학교가 그리워졌다. 대홍수 사건 이후, 호열은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착실한’ 소년이 되었다.

열한 명의 악동들은 문화 유적지에서 숨바꼭질과 쥐불놀이를 하며 지루함을 달랬다. 겨울에는 하늘에 가닿을 듯 높은 언덕에서 눈썰매를 탔다.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런 추억을 쌓은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어린 호열에게 몽촌토성은 해종일 뛰놀 수 있는 뒷동산이자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해주는 장소였다. 손때가 묻어나는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한 도깨비 시장도 호열이 좋아하던 장소였다. 길모습은 시골 장터나 다름없지만 흥정소리와 웃음소리로 북적북적한 시장은 도깨비 장터를 연상시켰다.

호열은 풍납동에서 강동구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암사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중학생 때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운함 마음도 들었지만, 기실 암사동은 찾아가고자 하면 그리 먼 곳이 아니었다. 전학을 가는 것도 아니어서 죽마고우와 눈물의 이별식을 치를 일도 없었다.

‘분투비 활동가’로 태어난 호열은 친구들과 여러 놀이를 즐겼다. 돌만 있으면 가능한 망까기(비석치기), 공을 주고받는 와리가리, 술래잡기 같은 다방구까지. 모두 호열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다. 깜깜한 밤을 밝히는 공터에서의 쥐불놀이를 할 때면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이 불 때문인지 가슴 속의 뜨거운 열정 때문인지 모를 정도로 노는 데 진심이였다.

밤이 되자 그와 친구들은 집 앞 공터에서 쥐불놀이를 했다. 검정색 도화지 위에 반짝이를 뿌린 듯

한 동그라미를 보고 있노라면 호열은 알래스카의 은하수도 부럽지 않았다.

호열은 중학교 때 다섯 명의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 중 소명호라는 친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연락을 한다.

때는 중학교 2학년 첫 등교 날.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으며 딱 맞게 교실에 도착했다. 교실 뒷문을 열자 작년과 다름없는 풍경들이 펼쳐졌다. 키가 큰 호열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맨 뒤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두리번거리던 중 앞에 앉은 아이가 눈에 띄었다. 그 친구가 바로 소명호이다. 호열은 명호의 뒷모습밖에 안 보였지만 책상에 놓여있던 낡은 농구공은 한눈에 들어왔다.

사실 이 친구보다 농구공에 먼저 눈길이 갔을지도 모르겠다. 학창 시절 농구나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했던 호열이 먼저 말을 걸었다. “농구 좀 하나?” 이름이 뭐야, 친하게 지내자 같은 형식적인 인사는 뒷전이였다. 명호는 저돌적인 호열에 당황했지만 “어, 그런데?”라고 맞받아쳤다. 워낙 친화력이 강했던 둘은 금세 친해졌다. 그 짧은 시간에 점심 시간에 같이 농구하자는 말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둘은 농구를 하며 먼 훗날 40대까지도 연을 잇는 평생친구가 되었다.

어린 시절의 꿈은 크기가 작든 크든 어린아이에게는 소중한 희망이고 목표이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때였고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나의 꿈은’이라고 시작되는 문구를 적게 하던 때였다. 연필 머리를 잘근잘근 씹으며 ‘꿈’을 적는 부분을 공란으로 놔둔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최호열이다.

까까머리 어린 호열에게는 꿈이 없었다. 수업시간을 마치는 종이 울려 옆자리 친구를 따라 ‘대통령’이라고 적었지만 허무맹랑한 그 꿈은 와닿을 리 없었다. 그만큼 불우했던 가정 형편이 그를 통제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매한가지였다. 오히려 머리가 굵어질수록 현실의 벽은 높아졌고 부정적인 생각만 커졌다.

‘대학 수업료는 커녕, 학비라도 있을까? 애초에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불안한 미래를 기다리느니 호열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다짐했다. 호열에게 잡히지 않는 ‘꿈’ 보다는 당장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였다. 그렇게 호열은 동생과 함께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창틀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술 취한 주정꾼들의 고성과 취기로 가득 찬 밤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 고된 날이 계속되었다. 호열은 ‘깡’ 하나로 버텼다. 땀방울로 얼룩진 나날들을 이겨내며 호열은 그의 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꿈을 적기에는 어린 시절 꿈을 적는 공란이 너무 작았는지도 모르겠다.

## Chapter 2: 어른이 된 호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호열은 대학교 진학 문제를 고민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라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예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런 호열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호열을 붙잡아 앉혔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건 생각하지 말고 대학은 가라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호열은 대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호열의 대학 입학금을 마련했다. 내키지 않는 대학교에 입학한 호열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곧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후 10에서 새벽 4시쯤까지 하는 술집 아르바이트는 고됐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 학교를 빠지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 보니 호열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의감에 빠졌다. 호열은 다소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 바로 입대였다. 스물이라는 나이에 군대를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입대를 결심한 그날, 호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신체검사까지 마치고 접수를 하러 갔다. 접수처의 아주머니는 앓던 얼굴의 그를 보며 너무 어리니 대기를 하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군대를 늦게 가는 분위기였다. 그 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호열은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땅바닥을 뒹굴며 온갖 고생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에 대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호열은 닥치지 않은 미래의 꿈을 끌어들이지 않았지만 이십 대 초반에 두 가지 도전을 더 했다. 바로 군대를 다녀와 과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에 도전한 것과 회사 면접을 본 일이다. 마냥 편안하고 즐겁지만은 않았던 호열의 20대 초반은 이렇게 흘러갔다.

다음호에 계속

# KOGA OPEN GOLF FESTIVAL

2022년 10월 20일, 33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인 KOGA OPEN GOLF FESTIVAL이 에메랄다 골프장에서 펼쳐졌다.

한인회 박재한 회장을 비롯 이강현 코참 회장, 송창근 코참 명예회장 등 각 계인사와 회원사140명이 모여 3년만에 개최하는 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안창섭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3년은 어느 때 보다 힘든 일들이 많았다. 우리는 초유의 위기 속에도 나름의 진통과 변화를 통해 성숙했다. 2020년 4월 BWI (Better Work Indonesia)와 미팅하여 코로나 초기의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제 정체 기간 동안 유연한 노동시간 적용 등을 꾸준히 관계정부에 요청해 왔다.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도네시아 봉제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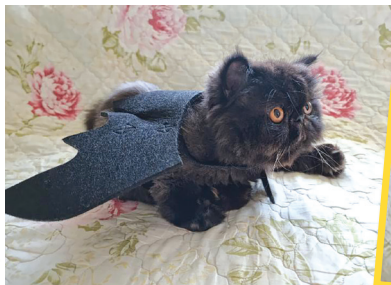
이날 골프대회의 메달리스트는 김흥기(PT. Baju Indah 대표), A위너는 이세호(민주평통 인니지회 회장), B위너는 천기태(PT. ING 이사)였으며 시상식과 만찬 등 화합을 위한 즐거운 시간으로 이어졌다.





# HALLOWEEN PARTY 2022

나현이네 꾀지  
#나도 준비했어요~~



박승우  
(ACS Jakarta, G3)  
#내 얼굴이 보이니?



#호박 파기 대회 1등  
김아린  
(Sinarmas World  
Academy, G3)



Sinarmas World Academy



#내 맘대로 움직이는 꼬깔



이윤아  
Nord Anglia School  
나이: 6살(만 5세)

#인어공주 자카르타를  
점령하다!

# 2022년 인도네시아 해외투자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자카르타








Ⅰ 일시 Ⅰ 2022. 11. 23.(수), 10:00~13:00

Ⅰ 장소 Ⅰ 더 웨스틴 자카르타 웨스트 자바 볼룸※

※주소 : Jl. H. R. Rasuna Said No.Kav.C-22A, RT.2/RW.5, Karet Kuningan, Kecamatan Setiabud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940

Ⅰ 대상 Ⅰ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소속기업 등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주최	 고용노동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관	 노사발전재단 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자카르타 무역관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세부 일정 ※공통사항: 발표시간내 질의응답 포함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0:00~10:10 (10')	개회 및 주최측 인사말씀	주최·주관기관 대표
10:10~11:20 (70')	개정 노동법 최신 동향 및 주요이슈 / 분쟁예방을 위한 노사관계 법률용어	법무법인 지평 권용숙 변호사
11:20~12:00 (40')	지적재산권 최신 동향 및 주요이슈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12:00~13:00 (60')	아세안 ESG 관련 동영상 시청(20') / 설문조사 및 오찬 동시 진행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기업 간담회 별도 진행
13:00	폐회 및 기념품 증정	

**참가신청** 2022.11.04.(금)~11.18(금) 15:00까지 아래 방법 중 택일

- 참가신청 링크 <https://naver.me/xqoxd8tT>
- 이메일 신청 신청정보(이름/소속/이메일) 회신(anjang77@nosa.or.kr)

##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 안준일 전문위원 (+82-2-6021-1075, anjang77@nosa.or.kr)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김대희 과장(+62-21-574-1522(내선115), daeheckim@kotra.or.kr)
-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김혜아 사무국장(+62-21-527-7539)



## “OK Friends!!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글 : 황다인 학생기자(BSJ11)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는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사회·역사·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및 유대감 고취를 위해 2022년 7월 14일 및 7월 28일 각 5박 6일의 일정으로 두차례 진행되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과 한국YMCA의 각 지부를 통해 선발된 청소년들은 충남 천안, 강원 평창, 경북 영덕, 경북 봉화 등 전국 곳곳에 마련된 청소년 연수원에서 6일간의 일정을 함께 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첫날 집합장소인 김포공항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배정된 버스를 타고 천안, 평창, 영덕, 봉화로 이동하였으며 내가 배정된 그룹의 연수 장소는 경북 봉화, 물론 태어나서 처음 가본 지역이었다. 연수원에 도착하니 대학생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 또래 친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러나 아직은 모두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첫날인 만큼 일정의 첫 시작은 ‘웰컴파티’였다. 웰컴파티로 아이스 브레이킹(Ice-breaking)을 마친 뒤 조 배정과 함께 각 조의 조장을 선발한 다음 각 조마다 일주일간 생활규칙을 스스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연수의 첫 프로그램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젝트로 참가 학생 전원이 자전거를 타며 획이 만드는 전

기에너지로 각자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활동이었다.

처음엔 모두 자신만만하게 자전거 안장에 올라탔으나 핸드폰의 ‘배터리 충전율 표시’ 숫자 1%를 올리기 위해서 5분넘게 페달을 밟으며 구슬땀을 흘려야 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달음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부터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며 모두 이 노력에 동참하자는 다짐과 함께 액티비티를 마무리 했다. 이튿날 오전은 상호이해와 어울림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모국어가 서툰 친구들의 경우 처음에는 게임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같은 조 친구들의 도움으로 결국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우즈벡에서 나고 자라 한국에 처음 방문한 친구들이 마산이 고향인 친구들의 구수한 사투리를 배우고 따라하는 모습에 미소를 절로 머금기도 하였다. 그 날 오후, 참가자들은 첫 야외 활동을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봉화 은어 축제’ 장소로 이동했다.

햇살 눈부신 여름, 하룻밤 사이 가까워진 새로운 또래 친구들과 단체로 은어 잡이를 한다는 설레임에 상기된 우리들은 머리끈으로 서로의 머리를 묶어주고 은어를 모조리 끌어 담겠다는 각오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물 낚시가



난생 처음인, 마음만(?) 강태공인 왕초보들에게  
은어잡이는 ‘물놀이’ 그 이상의 수확은 기대하  
기 힘든 게 현실이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부석사와 선비촌, 소수서원을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  
며, 전통 옷감을 직접 ‘천연염색’ 하는 체험도  
하였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신 과정과 세  
종대왕이 직접 만드신 궁서체로 한글을 붓글씨로  
정성스레 써보는 활동으로 셋째날의 일정을 마무  
리했는데 하룻동안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는 빠빠  
한 일정이 힘들 만도 한데 참여 학생들은 입을 모  
아 “한국의 문화와 뿌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소  
중한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넷째날은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  
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  
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과제인 지속가  
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해 조별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닷새째인 다음날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경  
각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틀에 걸쳐 지구촌 문제를 깨닫고 해결 방안에 대  
해 고민하고 또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를 다짐하는  
과정을 거치며 ‘미래의 지구촌 리더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그 세상을 함께 살아갈 현재의 지구촌  
청소년 모두’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5박6일의 알찬 프로그램은 영상, 음악, 마임, 미  
술 등 그룹별로 자신 있는 분야의 작품을 만들고

이를 발표하는 ‘Project Lab’ 으로 마무리되었  
다. 바쁜 일정에도 연수기간 동안 틈틈이 연습하  
고 준비한 것을 뽐내는 시간만큼 모두 조금씩  
긴장된 모습이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인상깊었다.

마지막 조의 발표가 끝날 무렵, 어색했던 처음 집  
합장소에서의 모습부터 5일차까지, 전체 일정 동  
안 참가자들의 활동을 영상에 담은 비디오 클립이  
공개되자 참가 학생들은 물론 대학생 리더선생님  
들까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에 모두 눈시울을 붉  
히기도 했다.

나 또한 우연한 기회로 신청하여 참여하게 된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모국인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해에 대한 단순 체험과 교육을 넘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각자 평생을 모르고 살았고  
또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친구들이 섞여 있음에도  
한국인이라는 공통분모 만으로 짧은 시간 함께 했  
지만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보람찬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내가 속  
했던 6조 친구들과 헤어지는 순간 흘렸던 눈물은  
“반드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세계곳곳을 누  
비며 친구들을 다시 만나겠다” 라는 다짐으로 이  
어지며 행복했던 연수일정을 마무리했다.



## 스승의 길을 찾다 스승을 꿈꾸다 -JKS,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실습 실시-



교장선생님 특강



동학년 교생 및 지도교사와의 수업 나눔



교육실습생 수업 실습

2022년 10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일주일간 경인교육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에서 실시되었다.

본교에서는 예비교원이 대학에서 배운 교육 이론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적용, 검증해 봄으로써 교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내실 있는 실습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실습에 참가한 15명의 학생들은 학급당 한 명씩 배치되어 지도교사와의 사전 연수에서 지도안 작성 및 학급 현황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10일 첫날 학급 학생들과 친교 활동을 시작으로 방과후학교 수업 및 지도교사 수업 참관 및 2회의 특강, 수업 실행 및 동료 교생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에 대한 전문성과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실습 마지막 날에는 코리안 데이 행사 부스 운영 및 학급 인솔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경인교육대학교 실습단은 재외한국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진로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등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귀한 기회였음을 밝혔다.



## 2022 JIKS Swimming Competition

지난 10월 21일 (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에서 2022 JIKS Swimming Competition 행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총 8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하여 꾸준히 배우고 익혀온 수영 실력을 발휘하였다. 대회는 남녀, 학년별(1~2학년 25m/3~6학년 50m)로 나누어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4개 종목의 개인 시합과 릴레이 등 34개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본교 수영장에서 개최된 대회는 교장선생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준비운동, 6학년 학생들의 출발 시범 참관 후, 본격적으로 종목별 개인 경기가 시작되었다. Mr. Adam과 Mr. Kevin(JIKS, 영어 원어민교사)의 올림픽대회를 능가하는 진행으로 수영 경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많은 학부모님, 선생님의 응원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승부를 펼친 선수들에게는 성별, 종목별 금, 은, 동메달이 수여되었으며 릴레이 선수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수영 실력과 체력을 기르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아가 친구를 서로 응원하며 도전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K-문화를 전파하다. 2022 JIKS KOREAN DAY!



지난 10월 14일 (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에서 2022 JIKS KOREAN DAY 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21개의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 공연으로 구성된 행사에는 JIKS 초등학생 전체, 한인유치원, 인도네시아 현지학교, 인도네시아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 및 한인 동포들이 참가하여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대한민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축제의 한마당을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전통문화에 대한 직·간접 체험을 제공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송삼순 선생님은 학생 및 한인 동포, 주민 모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인 사회와 인니 현지인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대한민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취하고자 기획하였다고 말했다.







## JKS 초등과정 재난대비 안전교육 하반기 지진대피훈련 실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 초등과정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수요일 초등 전교생 및 전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 앞서 지진 발생시 책상 등 가구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기, 출구 확보 및 건물 밖으로 이동하기, 머리를 보호하며 넓은 곳으로 대피하기 등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훈련 상황 개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몸을 보호하고, 지진이 멈춘 상황을 가 정해 가방 또는 교과서 등을 통해 머리를 보호하며 정해진 대피로를 따라 신속하게 운동장 대피장소로 대피함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침착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JIKS 어린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해외 한식당 자카르타 협의회, 전통주 공동구매 사업 전개

해외 한식당 자카르타 협의회(회장 전명현)는 한식진흥원의 2022년 사업 중 한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으로 전통주(보해 복분자) 공동구매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였다.

전체 70여개 회원사 중 공동구매 업체 25개 회원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자카르타 지역 외 땅그랑, 찔레곤, 찌까랑 지역의 회원사도 함께 참가하면서 총 회원사가 36개사로 늘어 그 열기가 뜨거웠다. 공동구매 회원사를 돕기 위해 9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전통주 홍보가 시작되었다.

전명현 회장은 “전체 인구의 약 15%(약 4천만명)가 비이슬람이고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한류를 통해 소주, 막걸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주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한국의 전통주가 최대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사업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였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의 행사 중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 무관을 초청하는 국경일 행사(2022년 10월 4일-Hotel Westin Jakarta)에서 전통주 홍보부스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 복분자 등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복분자 홍보 동영상을 촬영했던 전문 바텐더 아딘(Adin, 33세 남)씨는 “한국의 술은 소주만 생각했었다. 복분자의 맛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고 다양한 레시피로 복분자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외 한식당 자카르타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한국 전통주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의 반응을 접했고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 사진 제공 : 해외 한식당 자카르타 협의회 및 (재)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



# 제대로 이해하는 인도네시아 고유명사 기관(단체, 조직)명과 관직명 어떻게 사용하나 (2)

민선희 (본지 '문법왕' 기고)

## Presiden ①대통령 ②회장

- ◆Presiden Joko Widodo 조코 위도도 대통령
- ◆Presiden Xi Jinping 시진핑 주석  
대체 가능한 단어 국가최고지도자, 정상 pemimpin tertinggi, pemimpin negara
- ◆Presiden FIFA 국제축구연맹 회장
- ☆☆ Wakil Presiden (=Wapres 와쁘레스) 부통령
- ☆☆ Perdana Menteri (=PM 페엠) (국무)총리

## Ketua Umum (=Ketum 끄똘) ① 정당 대표(=총재) ② 의장 ③ 회장 (소장)

- ◆Ketua Umum Partai Gerindra Prabowo Subianto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당대표
- ◆Ketua Umum DPR RI 인도네시아 하원 (DPR, 국민대표회의) 의장
- ◆Ketua Umum KADIN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 (KADIN, Kamar Dagang dan Industri Indonesia)
- ※대한상의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Chairman KCCI Chey Tae-won

## Sekretaris Jenderal (=Sekjen 섹젠) 사무총장

- ◆Sekjen PBB 유엔 사무총장
- ◆Sekjen Partai PDI-P 투쟁민주당 사무총장 ☆☆ Wakil Sekjen 사무차장
- ☆☆ Sekjen Kementerian Pertahanan 국방부 사무차관\*  
(※국방부 차관 Wakil Menteri Pertahanan / Wamenhan)
- \*투자부 사무차관 Sekretaris Menteri Investasi (Sesmen)

## Direktur Jenderal (=Dirjen 디르젠, DG 디쥐) 총국장★★

- ◆Dirjen Strahan (Strategi Pertahanan) (인도네시아 국방부) 국방전략총국장
- ◆Dirjen Imigrasi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총국장 \*보통 이민청장으로 통합.
- ☆☆ Dirjen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 유엔사무총장 : Sekjen PBB

★★ 인도네시아 총국장(DG)은 우리나라와 국장(DG) 레벨과 유사

카운터 파트라고 해도 조직구성과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레벨로 맞추어 부르는 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국 정부기관의 **실장, 국장**(국장급 인사기획관/OO정책관 등)을 인도네시아에서는 *deputi menteri = deputy minister*, DG로 각각 소개한다.

예) 한국의 **정책관** ➡ **Dirjen Kebijakan** 한국의 **기획관** (예산 등 담당) ➡ **Dirjen Perencanaan**

\*\*실장을 *advisor (penasihat)* 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예)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National Security Advisor* = **Penasihat Keamanan Nasional**

인도네시아 정부 조직의 **direktur**는 우리나라 ‘과장과 국장 사이’에 있다고 보면 얼추 비슷하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과장을 *director*로 쓴다.

예) 한국의 **국제협력과장** ➡ **Deputi Direktorat Kersin** (*kerja sama internasional*)

※ 사무관은 보통 영어로 *deputy director* 를 쓰고, 인니어로 *deputi direktur* 라고 한다.

## Menteri Koordinator (=Menko, 멘코) 조정장관

現 조코위 행정부 (Pemerintahan Jokowi)에는 조정장관(우리 부총리급)이 4명이 있다.

영어로는 *Coordinating Minister*★

★영어는 역할을 형용사로 표현했으나, 인니어는 명사(~하는 사람)로 표현한 것이 차이점이다. 한국어로 조정장관이라고 해서 *Menteri Koordinasi*라고 직역해서 없는 걸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늘 검색과 읽기 공부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기본 문법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구조팀’이 인도네시아어로 *tim penyelamatan*이 아니라, *tim penyelamat*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Menteri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경제부문 조정장관 (경제부총리)

=**Menko Perekonomian**

참고)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경제조정부 (= Kemenko)



## Menteri 장관

Wakil Menteri 차관 (=Wamen, 와멘)

☆☆Deputi Menteri

- ① 차관보(장·차관 밑으로 deputi menteri 를 여럿 두는데, 차관 없이 장관 밑에 바로 deputi menteri를 여럿 두기도 함)
- ② 실장/본부장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장관 = *Minister of MOTIE* = **Menteri MOTIE** [모티/모티에]

※통상교섭본부장 *Minister for Trade* = **Menteri** (Bidang) **Perdagangan, MOTIE**

제1차관 First Vice Minister 제2차관 Second Vice Minister

◆한국 방위사업청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청장 = *Minister of DAPA (Minister of Defence Acquisition)* = Menteri DAPA

차장 = *Vice Minister of DAPA (Vice Minister of Defence Acquisition)* = Wamen DAPA

☞ 한국 정부직의 경우,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타이틀을 확인하여 인도네시아어로 바꾼다.

staf ahli

staf khusus (stafsus)\*

영어) *special advisor*

(대통령이나 장관의) 전문보좌관

※장관 전문보좌관은 최대5명, 차관보 수보다 많으면 안 됨. 부처내부승진.

(대통령이나 장관의) 특별보좌관(특보), 특별자문관

\*공무원, 비공무원 가능(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음)

※장관 특보는 최대 3명, 자문 기능

## Gubernur 주지사 (도지사)

**Mantan** Gubernur DKI Jakarta Anies Baswedan 아니스 바스웨단 前 자카르타주지사

**Penjabat** Gubernur DKI Jakarta Heru Budi Hartono 헤루 부디 하르토노 자카르타주지사 직무대리

Wakil Gubernur (=Wagub, 와굽) 부지사

☆☆ Gubernur Bank Indonesia 인도네시아은행 (중앙은행) 총재

☆☆ Gubernur Lemhanas 안보대학교 총장\* (Lembaga Ketahanan Nasional)

\*일반적으로 대학 총장은 rektor, 부총장은 pembantu rektor

▶ **Kepala Dinas** (정부기관의 지역사무소) 청장

예) 지방정부 (Pemda, Pemerintah(an) Daerah) 산하 Dinas Pendidikan 교육청

Kepala Dinas Pendidikan = **Kadis** Pendidikan 교육청장

<이런 것도 있어요!>

▷ aspri [아스쁘리] asisten pribadi 개인보좌관

▷ sespri [세스쁘리] sekretaris pribadi 개인비서(관)

▷ ajudan [아주단] 수행비서관

영어로는 aide (보좌관). 보통 지역단체장이나 대통령, 부통령 등 주요 관직자의 수행비서역 (※군 대령Kolonel 이거나 경찰 총경Kombes(인니에서는 ‘경찰 대령’ 이 한다))

▷ Paspampres [파스팸쁘레스] Pasukan Pengamanan Presiden 대통령경호팀

직역 : 대통령 경호 부대 (육해공 군인들이 경호)

### ♣♣♣♣ 이민국? 이민청? 헛갈리지 마세요! ♣♣♣♣

Kantor Imigrasi (Immigration Office)를 우리나라에서는 출입국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라고 칭한다. 한국에서 쓰는 명칭대로 써도 될 때도 있지만, 늘 한국과 동일한 명칭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에서는 한 개의 큰 기관이, 인도네시아에서는 2개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쓰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Kantor Imigrasi 사무소는 도시내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민사무소라고 하면 적당할 듯 하다. 다만, 이민’ 국’ 이라고 하면 소단위 사무소가 아닌, 큰 기관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써 온 것을 단숨에 바꿔 쓰기는 어렵고, 공통의 이해만 있다면 되는 문제라고 본다.

Ditjen Imigrasi는 교민사회 내에서 ‘이민청’ 으로 쓰이고 있다.

Ditjen Imigrasi [딧젠 이미그라시]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이민총국’ 은 법무인권부 조직내 부서(6개 Direktorat 중 하나)이며, 장(長)을 Dirjen /디르젠/ (Direktur Jenderal) ‘총국장’ 이라 부르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이민청장’ 으로 불리고 있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Kantor Imigrasi와 Ditjen Imigrasi의 차이는 이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법무부를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이민총국(Ditjen Imigrasi)은 법무인권부” 내” 조직이므로 구성은 조금 다르지만, ‘이민청장’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이민총국은 (법무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www.imigrasi.go.id](http://www.imigrasi.go.id)).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영어로 풀어 쓰면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인데, 인도네시아어로는 **Badan Intelijen Pusat** 으로 번역한다. 전문가 그룹내 대화 시에는 주로 CIA(씨-아이-에이)라고 영어를 그대로 쓸 것이다. 가끔 CIA를 ‘정보부’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우리 언론에서는 기관명은 중앙정보국(CIA), 최고책임자의 직명은 director ‘국장’ 으로 통용되고 있다. 아마 최고 책임자를 미국에서 director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국장’ 으로 번역해 오랜기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을 공유하다 우리 모두가 전승 주체인 공동체종목

2017년 '김치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우리 식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지정이다. 하지만 '김치 담그기'를 전승할 주체로 특정인이나 단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씨름', '온돌문화', '장 담그기', '떡 만들기', '한복생활'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특정할 수 없는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 등의 무형문화재를 '공동체종목'이라고 한다.

01.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 '김치 담그기'. 마당에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은 점차 드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김치 담그기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문화재단

###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등장

국가무형문화재 하면 함께 떠오르는 것이 보유자이다. '기·예능보유자' 혹은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사람 혹은 단체가 그 종목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을 전후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은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는 2015년 새롭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지정 범위가 확대된 이후 더욱 많아졌다. 2015년 '아리랑'을 시작으로 '제다' (2016), '씨름' · '해녀' · '김치 담그기' (2017), '제염' · '온돌문화' · '장 담그기' (2018), '전통어로방식-어살' (2019), '활쏘기'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2020), '막걸리 빚기' · '떡 만들기' ·





02

02.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 '장 담그기'.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은 김치와 함께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박은경

‘갯벌어로’ (2021), ‘한복생활’ (2022) 등의 종목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들 종목을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종목을 전승할 적절한 기량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가무형 문화재 종목 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등의 분야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문적인 전통 공연예술이나 공예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전통지식, 구비전승, 생활 관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무형문화재가 늘고 있다.

2022년 주목할 만한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 용어가 등장한다. ‘전승공동체’가 그것이다. 2022년 1월 일부 개정되고 7월에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승공동체란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전승공동체 용어의 법제화에 발맞추어 ‘공동체종목’이라는 용어 또한 등장했다. 2015년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새롭게 나타난 지정 종목을 지칭하는 용어로 공동체종목이 제안된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공동체종목이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해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종목”을 가리킨다. 그동안 이들 종목을 ‘종목만 지정한 종목’이라는 다소 어색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그 정의에 따른다면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총 154종목 중 공동체종목은 15종목이다. 앞에서 살펴본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등이다.



03



04

03. 일상복장에서 특별한 날의 예복으로,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는 '한복생활' ©한국관광공사

04. 홍삼과 인삼을 판매하는 좌판,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문화재청

공동체종목에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종목을 전승할 기량을 갖춘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이다. 김치 담그기는 가족, 친족, 이웃 간에 그 전승이 이루어지고 향유되고 있는 우리의 무형유산이다. 장 담그기 또한 우리나라 전역의 각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며 발전시켜온 온돌문화는 말할 나위도 없다. 한복생활 역시 여전히 의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살아 있는 문화이다. 아리랑을 부르지 못하는 국민은 거의 없으며, 씨름 한번 안 해 본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없다.

차를 만드는 기술인 제다는 한반도 남부 지방의 차 산지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방식과 여러 형태로 그 지식이 공유되고 전승되고 있다. 바닷물을 이용해 소금을 얻는 지식인 제염도 유사하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중심의 생업인 물질과 관련 문화 전반을 지정한 해녀 역시 전승자와 향유자를 한두 사람이나 단체로 특정할 수 없는 종목이다. 마찬가지로 전통어로방식-어살이나 갯벌어로,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도 지역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전승 주체가 존재한다. 보유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지정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 때문에 공동체종목은 살아 있는 우리 무형유산의 대표이자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경우 국민 대다수 혹은 특정 지역의 공동체 대부분이 그 지식이나 관습을 공유한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전승자이자 향유자가 될 수 있다. 공동체종목에 포함되는 15종목은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실상 일상이자 삶 자체여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정된 종목 모두 우리 문화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종목의 국가무형문화



05



06

05. 경남 사천시 마도에 설치된 죽방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유사한 형태로 전승 되어온 '전통어로 방식-어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06. '갯벌어로' 중 벨베를 이용해 갯벌로 이동하는 모습 ©문화재청

재 지정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 왔던 우리의 오랜 지혜와 숨씨 그리고 생활 속의 신명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문화재청은 이러한 공동체종목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었다. 문화재청이 공동체종목을 특정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종목이 갖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공동체종목은 우리 모두 혹은 다수의 주체가 전승자이고 향유자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모두 혹은 다수가 전승의 주체라는 것이 전승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다. '우리 모두'가 전승자라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종목이 활발하게 전승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모두가 능동적인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동체 전체가 자기 스스로 보유자이며 인간문화재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책임감도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공동체종목인, 공동체 없는 무형유산이 생겨날 수 있다. 생활이나 삶과는 유리된 기형적인 공동(空洞)의 무형유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랜 지혜와 숨씨 그리고 생활 속의 신명을 전승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장이 펼쳐졌으니 이제 전에 없던 전승의 지혜와 개성을 발휘할 때다.

공동체종목이 활발하게 전승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모두가 능동적인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동체 전체가 자기 스스로 보유자이며 인간문화재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책임감도 공유해야 한다

글. 허용호(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특임교수)



## 분쟁 해결 방법(3)

(전호에서 계속)

### 6. 형사고소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형사 고소의 본질은 분쟁해결 방법이 아니고, 범죄자 처벌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목적이거나, 비즈니스 분쟁 해결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민사 분쟁 상대 당사자를 형사고발해서 분쟁을 해결해보겠다는 목적으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시 상황이다. 분쟁해결 목적 형사고소는 대부분 일반사기 혐의(형법 제 378 조) 및 횡령 혐의(형법 제 372 조) 고소이다.

#### 6.1. 형사 고소처

경찰본부(Markas Besar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Mabes Polri), 지방경찰청(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Daerah/Polda), 경찰서(Kepolisian Resor/Polres) 혹은 경찰지서(Kepolisian Sektor/Polsek)에 고소할 수 있으며, 어느 경찰 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경제 범죄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 고발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법을 아는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제 가액의 규모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양하고, 지방경찰청은 경찰서로 사건을 이양시키는 경향이 있다.

#### 6.2. 수사권

연행, 체포, 구속, 수색, 압류 등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 6.3. 구속

징역 최장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관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여부 판단은 수사관이 하며, 수감 장소는 경찰 유치장이며, 거주지 도시로 주거를 제한할 수도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처음 구

속은 최장 20일(수사관의 결정)이며, 구속 기간 1차 연장은 최장 40일(검사의 결정), 2차 연장은 최장 30일(지방법원장의 결정), 3차 연장은 최장 30일(지방법원장의 결정)이다. 외국인 피의자는 구속하지 않으면 하더라도 출국해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구속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6.4. 수사 절차

형사고소를 하면 형사고소 접수증(Laporan Polisi)을 고소자에게 교부하고, 분석실에서 분석 후, 해당 수사과에 배정이 된다. 지방경찰청의 수사 라인인 지방경찰청장-수사국장-부국장-수사팀장-수사반장-수사관이며,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며, 고소인이 진술하는 내용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증인 및 참고인을 조사 후,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을 조사한다. 고소인, 증인, 참고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질 신문(Debat)을 하며, 일 단계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검토회(Gelar Perkara)를 개최하여 수사 진행 여부와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

#### 6.5. 피고소인의 권리

피고소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인과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의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외국인은 통역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현시 상황이다.

#### 6.6. 검찰 송치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수사 파일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다.

#### 6.7. 검찰의 권한

검찰은 적용할 형법 조항을 결정하며,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하며,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며, 구형하며, 판결문을 집행한다.

6.8. 피고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확정판결문은 민사재판에 증거능력이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이용된다.

#### 6.9. 수사 중단

피고소인을 조사해본 결과 i).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상 범죄가 아니거나, ii) 형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iii). 공소 시효가 지났거나, 피고소인이 사망 시 수사관은 수사를 중단한다.

### 7. 파산선고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채무자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파산선고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관재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고 분쟁을 종결짓는 방법이다.

#### 7.1.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한 채권

금전대여, 물품 혹은 서비스 매매, 건설 계약, 임대차, Lease, Factoring 등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및 인건비이며, 외국에서 발생한 채권도 파산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은 채무자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채권자가 인도네시아의 상업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청구하여 채무자를 파산시킬 수 있다.

#### 7.2. 파산선고 피청구 가능 채무자

7.2.1.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청구를 불허한다. 그러나 정부를 제외한 모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혹은 공공단체에 대하여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하며,

7.2.2.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여하한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외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재원, 지점 혹은 지사가 있으면 파산선고가 가능하며, 내국회사, 외국회사, 내국인, 외국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업법원을 통하여 채무

자를 파산시키고 채무자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 회수 가능하며,

7.2.3. 채무자가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났을지라도 파산 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채무자인 회사를 먼저 파산시킨 후, 물품대 혹은 인건비를 갚지 않고 도주한 사주와 경영진에 대하여 법적으로 압박이 가능하다.

#### 7.3. 파산선고 청구 자격자

##### 7.3.1. 채권자

##### 7.3.2. 검찰

##### 7.3.3. 금융감독원

##### 7.3.4. 채무자 자신

#### 7.4. 파산선고 조건

채권자의 인원이 2명 이상이며, 2개의 채권 중 최소 1개의 채권이 만기되었으면 파산선고 조건을 충족시킨다. 채권자가 1명인 경우에는 채권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파산선고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7.5. 파산선고의 법적인 효력

7.5.1.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 상태가 된다.

7.5.2.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치산권을 상실하며, 채무자의 치산권을 관재인이 행사한다.

7.5.3.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의 치산권을 상실하며, 주주 및 이사회의 치산권을 관재인이 행사한다.

7.5.4. 상업법원의 파산선고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더라도 상업법원의 파산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7.5.5. 파산선고 판결문을 전국지 일간지 2곳에 공시하며, 채무자는 전체 재산 보고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채권자 회의 직접 참석의무가 있으며, 비협조 시 법원을 제재가 가능하다.

(다음 호에 계속)

## 2022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2.1.1. ~ 11.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3	명예고문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5,000	
4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8	고문	이호덕	PT. ROYAL SUMATRA GROUP	5,000	
9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10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 SAN HOLDING	10,000	
11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2	부회장	강영균	PT. HELMINDO UTAMA	5,000	
13	부회장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5,000	
14	부회장	김창곤	PT. KODECO ENERGY CO. LTD	5,000	
15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6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7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18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9	부회장	이광옥	PT. YUNI INTERNATIONAL	5,000	
20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21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22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23	부회장	이주한	PT. MEDISON JAYA RAYA	5,000	
24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25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5,000	
26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27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28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1,000	
29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30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31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2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1,000	
33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34	자문위원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1,000	
35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36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37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38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39	자문위원	이진수	PT. SUNGBO JAY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0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INDONESIA	1,000	
41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42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43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44	이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000	
45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46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47	이사	강형구	PT. TUGU INSURANCE BROKERS	1,000	
48	이사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49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50	이사	김동석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1,000	
51	이사	김문수	PT. QUTY KARUNIA	1,000	
52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53	이사	김삼두	PT. CIPTA KREASI NADA	1,000	
54	이사	김서경	PT. ACCENTUATES	1,000	
55	이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000	
56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57	이사	김종규	PT. ELIM TECH	1,000	
58	이사	김종화	PT. ART MOLD INDONESIA	1,000	
59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60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61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62	이사	김희중	PT. JKI CONSULTING	1,000	
63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000	
64	이사	노태진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65	이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66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67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68	이사	방진학	PT. HANSUNG INDOTAMA WORLD	1,000	
69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70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71	이사	성예식	PT. F1-LOGIX	1,000	
72	이사	신성철	PT. DAILY INDONESIA	1,000	
73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74	이사	안윤근	PT. YONG WOO INTERNATIONAL	1,000	
75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76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77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78	이사	이근대	PT. DONGBANG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79	이사	이명균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000	
80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81	이사	이세호	PT. GORI GLOBAL INDONESIA	1,000	
82	이사	이소왕	PT. DOOWANG INDONESIA	1,000	
83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84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85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INDONESIA	1,000	
86	이사	이희경	PT. PRIME FREIGHT INDONESIA	1,000	
87	이사	임일택	PT. ACE MOLD TECH	1,000	
88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89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90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91	이사	조용재	PT. FOOD KOREA INDONESIA	1,000	
92	이사	조호신	PT. NEMO INDONESIA	1,000	
93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1,000	
94	이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000	
95	이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000	

## 2022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번호	성명	금액(IDR)
1327	노태진	300,000
1328	김삼두	300,000
1329	김영주	300,000
1330	최태립	300,000
1331	이근대	300,000
1332	노예범	300,000
1333	방진학	300,000
1334	이명균	300,000
1335	요셉김	300,000
1336	이지선	500,000
1337	신성철	300,000
1338	이현상	300,000
1339	김창곤	300,000
1340	NO NAME	300,000
1341	권명희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342	이지선	500,000
1343	임일택	300,000
1344	최새연	300,000
1345	이지선	500,000
1346	최재혁	300,000
1347	조호신	300,000
1348	이광옥	300,000
1349	이지완	300,000
1350	이진호	300,000
1351	김종희	300,000
1352	유용선	300,000
1353	김종화	300,000
1354	강병찬	300,000
1355	김동석	300,000
1356	김영섭	300,000



## 2022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 송년의 밤

###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준 것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힘을 얻는 한 해였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곁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오후 5시
- 장 소 : 물리아 호텔 (Jakarta Senayan)  
Ballroom 2 & 3
- 초대가수 : 서지오, 지원이, 소유미  
(FC트롯퀸즈 3인방)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관.....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 6555

##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	------

##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	-----	------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성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봉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글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글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다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피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고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쯔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뎀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 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시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썸드라마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 시내 ) 521 2180  
( 터미널3 )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 시내 ) 5031 1030  
( 공항지점 )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http://dailyindonesia.co.kr)



## • 종교 단체

###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에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회

###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웅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향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재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 이용안내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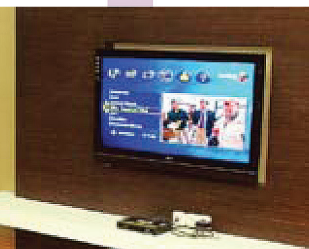
###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현재 2022. 08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 0822 1996 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1	즈파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BE  
THE FIRST  
MOVER**



**KMK GROUP**